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이 길 힘을 주셔서 언제나 넉넉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에 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개인적 절제부터 창조 질서준수와 보전까지

Churchleaders.com, 사순절 맞아 최근 실천되는 절제와 희생 소개와 비평 소개

사순절 기간 동안, 크리스천들이 Facebook이나 카페인을 끊는 실천들은 2015년부터 시작됐다. 부활절 전까지 40일 동안 회개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는 최근의 경향은 하나님의 창조를 돌보고 지키는 것이다.

2018년 사순절 기간 동안 성도들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끊도록 격려한 한 영국 교회의 예시에 따르면, 오늘날 많은 미국 교회들은 병과 빨대 그리고 비닐봉지, 스티로폼과 같은 폐기물 사용의 "금식"을 권하고 있다. 지난 해, 영국 성공회는 회중들에게 기도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산책을 권장하기도 했다.

그해 3월 6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에 영국성공회는 회중들에게 탄소 사용량을

추적하거나 육류를 덜 소비하는 것과 같은 친환경적인 실천들을 요청하면서, 창조세계 돌봄 서약(Creation Care Pledge)을 시작했다.

성공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태양 에너지와 친환경 주력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워싱턴 DC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가톨릭 교구에서는 금요일 Soup Supper(사순절 때, 신도들이 고기가 거의 들어가지 않은 야채수프를 함께 먹으며 친교를 나누는 자리)에서 종이나 플라스틱과 같은 일회용품 사용은 피하고 대신에 설거지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릇들을 사용하기도 했다(All the Ways Christians Are Observing Lent This Year).

이러한 희생적 실천들이 사순절의 의미를 잘 따르는 것일까?

사순절 기간 동안 무언가를 끊고 포기하는 전통은 사탄의 유혹이 있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시며 기도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됐다. 신학자 윌터 브루거만(Walter Brueggemann)은 금식을 "정의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를 기르는 훈련", 즉 크리스천들을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말한 바 있다.

펜실베이니아의 성공회 목사인 사라 로싱(Sarah Rossing)은 플라스틱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일은 사람들이 사순절의 희생에 관해 생각하도록 돕는데, 그것은 "단지 초콜릿이나 술과 같이 지극히 개인적인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 그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포기함으로써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구와 함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플라스틱 사용을 끊는 일이 사순절의 요점을 놓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스탠리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 교수는 비록 그런 실천들이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긴 하겠지만, "그것은 사순절 의미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끊는 것은 사순절과는 다른 영역의 문제들을 목적으로 갖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은 죄의 고백에 대

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이들은 플라스틱 반대 운동이야말로, 진보적인 개혁운동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매트 필빈(Matt Philbin)은 "모든 개인적인 차원의 죄들에서 벗어나십시오. 친환경적인 사순절은 훨씬 쉬워졌습니다...이 실천은 실제로 가장 나쁜 것들을 향한 책임을 지지 않고, 참회의 재와 베품을 입는 일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13면으로 계속)



사진설명: 우한(武漢)시 의료진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

코로나: 검열 때문에 더 악화하는 전염병

Bitterwinter.org, 익명으로 중국공산당 보도통제 중국 현지 상황 고발 보도

비터 윈터는 어떤 통제가 이뤄지기에 중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에 관한 진실 보도가 나오지 못하는지를 중국 기자들에게서 직접 들 수 있었다. 기자들이 정부의 지침과 기자회견 때의 공식 발표에 따라서만 보도할 수 있기에 제아무리 생명에 긴요할 수 있는 정보라도 국민들에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Coronavirus, CCP censorship makes the epidemic worse).

검열이 가장 큰 문제

우한(武漢)시에서 처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발견됐을 때 신속하게 통제하는데 실패한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은 이후 국민들이 중국 본토의 실상을 알지 못하도록 감추는 데만 급급하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유언비어 유포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등 '사회 안정' 유지에만 총력을 펼칠 따름이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남동부 소재 어느 통신사 직원이 비터 윈터에 제보한 바에 따르면 1월 23일, 심각한 전염병으로 우한시가 봉쇄된 지 며칠 뒤에 정부의 고위 홍보부서로부터 그가 일하는 통신사로 명령 하나가 하달됐다.

내용을 보면 기자는 병원에 격리 병동이 부족하다거나 의심 환자들이 거주 단지에서 발견돼 조사 중이라거나 등등, 전염병의 실제 상황을

과해치는 인터뷰를 해서는 안 되며, 그보다는 필요한 과학정보를 전해주면서 정부가 구호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얼마나 훌륭하게 전염병 통제에 성공하고 있는지와 같은 '긍정적인' 뉴스를 보도하는 데 집중하라는 것이었다. 대중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데만 급급한 의도가 뻔히 보이는 명령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고위 홍보부서는 전염병에 관한 모든 통계치는 '코로나바이러스 예방통제 지도그룹'이 발행한 것에 따라 보도하라는 지침 역시 내렸다.

중국 언론에서 내보내는 바이러스 관련 모든 일간 기사들은 관영 신화통신에서 보도한 내용이나 중국 위생부 기자회견에서 제공되는 보도 자료에 의거해 엄격하게 편집돼야만 한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은희곤 목사



3면 한국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8면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이윤석 목사



16면 새책소개 최동진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 캠퍼스 | 온라인

한부모 가정 모임 LA 비전교회 협력사역 520 S. Lafayette Park Pl #200 213-386-9191, 949-627-1452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 44회 총회 소집 공고 및 등록안내

The Preparation Committee for The 44rd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총대 제위께 문안 드립니다. 제 44회 총회소집을 공고하며 총회에 참석하시는 총대를 위한 호텔 예약 일정과 등록을 안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1. 총회일시 주후 2020년 5월 12일(화) - 5월 15일(금) (3박 4일)
2. 총회장소 Crown Paradise Club Blvd. Kukulcan Km. 18.5, Hotel Zone CanCun, Mexico 77500
3. 숙박비 총회 기간의 숙박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는미화(USD)입니다.

Table with 3 columns: 객실구분, 등록마감일 및 참가비, 2차(3/01/2020), 3차(4/10/2020). Rows include 2인1실(1인당), 부부, 원로/성로 목사, and (부부).

* 각 노회 원로목사님은 총회(제33회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 참가비 50% 할인된 가격입니다.

- 1) 개인 숙박 개인적으로 숙소를 정하시고 총회에 참석하시는 분은 등록비 \$150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총회에 하루 일찍 오실 분이나, 폐회 후 하루 늦게 가시는 분들 중에 호텔 예약이 필요하신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등록: 12살 미만 첫 번째 자녀는 공짜, 12살 미만 두번째 자녀는 하루\$65 (13살 이상은 성인과 동일한 비용)
4. 등록 및 송금 안내
등록 신청서와 송금은 아래의 주소로 check 혹은 money order로 보내 주십시오. (미국 외에서 등록하시는 분은 US money order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수취인 (Pay to the order) : ENYP (뉴욕동노회)
* 주소 : Rev. John Jung (정준성 목사) 209-08 48th Ave., Bayside, NY 11364

온라인 신청서 https://forms.gle/wdQrWQqasiZqJs877

- 5. 교통안내
6. 접수
7. 동시 통역 및 제반사항 안내

* 문의처 총무: 문덕연 목사 (718) 757-1142
위원장: 허민수 목사 (201) 654-1023
서기: 이상만 목사 (201) 403-4711

주후 2020년 2월 29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44회 총회 준비위원회

총회장 양수철 목사
위원장 허민수 목사
서기 이상만 목사

발행인 칼럼

미래(未來)의 현존(現存)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중국에서 시작한 페렘 바이러스가 이제는 한국에도 창궐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들을 막는 일이 확산되고 있지만 전염병에서 안전한 나라는 세계 아무 곳도 없다.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의학, 사회적, 경제적 관점 등 다양한 관점이 있겠고 영적인 관점도 여럿이 있겠으나 이 상황을 “미래(未來)의 현존(現存)”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역사가 끝나고 영원한 미래 세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미래가 현재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온 인류는 그것을 알든 모르든 지금 “이미”와 “아직”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영원한 미래는 구원과 심판으로 나뉜다. 그 구원과 심판이 “이미” 현재에 들어와 현존하고 있는 것이다.

영원한 구원과 심판이 현존에 담겨 있는 모습을 설명하기에 영어의 “appetizer”보다 한국의 “맛보기”가 더 잘 와 닿는다. 그렇다. 천국의 맛보기와 지옥의 맛보기가 엄연(奄然)히 현존한다. 이 세상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확실히 천국의 “맛보기”이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에베소서 1:13-14)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고? 그렇다. 찬송으로 천국의 현존, 천국의 맛보기를 이렇게 노래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구원의 현존은 가득하다.

고통을 호소하며 여기저기서 쓰러지고 죽는 모습은 영원한 심판의 현존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나라 하시기로”(예레미야 25:15-16) 심판의 현존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땅의 필요한 논리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무조건 순응해서는 안 된다. 미래의 현존으로서의 이 땅의 고통을 바라본다면 주일예배를 포기하고 기도회를 걸어 잠글 일만은 아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 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기록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역대하 7:13b-16). 하나님은 전염병이 있을 때 피해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성전에 모여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고통의 현실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이민 교회에 있는 당신이 직접 당하지 않으니...” 라는 비난도 들을 수 있겠다. 그렇다. 극심한 어려움을 직면할 때 나의 결정이 나를 두렵게 할 것 같다. “현실의 미래”를 논한다면 일단 힘든 현실에서 피해야 옳겠다. 그러나 “미래의 현존”으로 이 땅을 바라본다면 교회가 길을 걸, 교회가 외침 메시지는 따로 있음이 분명하다. 사랑하는 한국교회와 고통 받는 온 땅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

고통의 현실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이민 교회에 있는 당신이 직접 당하지 않으니...” 라는 비난도 들을 수 있겠다. 그렇다. 극심한 어려움을 직면할 때 나의 결정이 나를 두렵게 할 것 같다. “현실의 미래”를 논한다면 일단 힘든 현실에서 피해야 옳겠다. 그러나 “미래의 현존”으로 이 땅을 바라본다면 교회가 길을 걸, 교회가 외침 메시지는 따로 있음이 분명하다. 사랑하는 한국교회와 고통 받는 온 땅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

거절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초청하라!

리더십저널, 윌로우크릭 전도팀 개리 폴 목사가 전하는 새신자 초청 노하우 소개

정신질환 중 ‘회피성 인격장애(Avoidant personality disorder)’라는 질환이 있다. 이것은 친밀한 대인관계를 원하면서도 상대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 사람들을 피하는 인격 장애를 일컫는다.

해당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평소 부정적 평가나 거절에 관한 공포감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측면에서 타인들과 접촉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그들은 거절에 매우 예민해 자신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약 3% 정도가 이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의 일선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목회자는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과 대인관계를 해야 하는데, ‘거절의 두려움’은 목회의 발목을 잡는다.

특히 소그룹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나 인도자에게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왜냐하면 소그룹은 구성원들을 초청하는 과정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한 ‘거절의 두려움’이 본능처럼 꿈틀대기 시작하면 소그룹 시작단계부터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그럼으로 건강한 소그룹을 세우고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그렇다면, ‘거절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비 구성원들을 소그룹으로 초청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알아야 한다.

윌로우크릭교회의 전도팀 대표사역자인 저자 개리 폴(Garry Poole) 목사는 10년이 넘도록 구도자 소그룹 사역을 맡아 전담했다. 폴 목사는 “거절의 두려움”없이 교회를 찾아 온 구도자들을 어떻게 소그룹 사역에 초청했는지를 진솔하게 전해준다(Seeker small group).

초청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라

사람 사이 친밀감은 서로를 향한 신뢰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두터운 신뢰가 바탕이 된 두 사람의 관계에는 ‘이 사람은 내게 이렇게 반응할 거야. 이 사람은 내 신의를 저리지 않을 거야’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결국, 친밀감이



예비 구성원들의 집에 직접 세우고 인도하기 이전 ‘두려움’

신뢰가 바탕 된 친밀감으로 초청해 개별적 만남 통해 모임 중요성과 성실성 전달 소그룹의 편안함과 안전함 잘 전달

커질수록 서로를 향한 신뢰가 깊어지고 거절의 두려움은 그만큼 약화된다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예비 구성원들을 소그룹으로 초청할 때는 소그룹 인도자가 평소 친밀감을 충분히 느껴왔던 사람들을 우선으로 초청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인도자가 예비 구성원들과 신뢰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들은 소그룹 모임에 응해달라는 인도자의 요청을 더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다.

직접 만나서 따뜻하고 친근감 있게 초청하라

처음으로 초청을 할 때는 직접 만나서 초청하는 방법이 모임의 중요성과 인도자의 성실성을 가장 잘 전달하는 방

법이다. 소그룹 인도자가 소그룹을 예비 구성원들의 집에 직접 세우고 인도하기 이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예비 구성원들도 마찬가지로 나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윌로우크릭교회에서 오랫동안 소그룹 책임자로 사역한 개리 폴목사는 예비 구성원들이 초청받을 때 느끼는 두려움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그러나 그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 언제든 지 기꺼이 뒤로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 물론 ‘거절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도자에게 이런 방법은 매우 큰 도전이지만, 역설적으로 이 방법은 인도자가 뜻밖의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다.

예비 구성원들의 두려움에 없애 주라

에 대해 두려움 △모임에서 외톨이가 되거나 판단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시간과 돈 낭비에 대한 두려움 △사적인 말들이 새나갈 것에 대한 두려움 △거절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므로 인도자들은 예비 구성원들을 초청할 때, 그들이 개인적으로 갖는 다양한 두려움을 반드시 알아내 그것을 없애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은 인도자의 구도자 소그룹이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한 장소인지를 어느 정도 잘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인도자들은 그들이 참여할 소그룹이 염려할 것 없는 그룹이라는 점을 확신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결론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로 손꼽히는 모세는 자신의 언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네 입

발행인 칼럼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20 혹은 J-1 Visa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타 대학, 신학교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 가능

본교 졸업자는 국제복음주의협회(IEA) 목사안수 받을 수 있음

선교지, 목회사역지 적극추천 및 파송

부설: MIRI - Midwest 국제연구재단, 국제비즈니스창업센터

GLI - 글로벌리더십연구재단, 국가미래전략연구소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 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advertisement with logo, contact info, and program details.

코로나: 검열 때문에 ...

(1면에서 계속) 정부 관계부서의 승인 없이 이뤄진 보도는 그제 무엇이든 '유언비어'로 간주되며 해당 기자는 처벌 받는다.

2월 4일, 국가공안부(國家公安部)는 모든 국가 공안부서들을 대상으로 3차 화상회의를 열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대처 문제를 다뤘다. 당시 당국이 최우선 순위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은 여태까지 쪽 그랬듯 정치적 보안이었다. 또 '안정 유지'에 필수인 정부지침을 따르지 않는 '유언비어 생산자들'은 엄벌에 처할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협박받는 기자들

중국 북동부 헤이룽장(黑龍江)성 고급인민법원(高級人民法院)은 최근 '긴급공지'를 통해 전염병에 관한 '유언비어'의 고의적 생성 및 유포는 어떠한 경우라도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 명령에 의하면 언론인은 그 어떤 병원에서도 인터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공식 통계치가 사실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통신사 직원의 말이다. "비밀 유지 때문에 구(區)나 현(縣)급 정부조차 통계를 낼 수가 없죠" 그가 덧붙였다.

그 통신사 직원에 따르면 고위 홍보부서에서 발행했던 그 공지내용도 기밀사항이다. 일간 기사들의 내용에 '언론기밀담당관들'이 전화로 내려오는 정부 홍보부서의 지시를 종이에 받아 적어서 현지 언론사에 넘긴다. 그래서 모든 현지 기자들이 그 지시에 따라 일관된 정보를 내보내는 것이다. 상기 통신사의 언론인들

은 수술용 마스크 가격 인상에 관한 뉴스를 비롯해 정부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 수 있는 정보는 보도를 금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통신사 사장은 심지어 직원들에게 '그런 보도를 내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 정부가 정한 사회 질서 규제의 선을 넘지 말라. 말을 안 들으면 춘절기간에 2주 동안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은 약과이고 직장에



서 잘릴 수도 있으니 명심하라"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전염병 발발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된 주된 원인은 정부 보도의 투명성 결여를 들 수 있습니다." 같은 통신사 직원이 비터 윈터에게 말했다. "거의 한 달 동안이나 우한시 정부는 적기에 전염병에 관해 보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1월 중순, 그 성도가 우한시인 후베이(湖北)성 정부는 성(省) 인민대표대회(PPC)와 인민정치협상회의(PPCC) 연례 총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PPC 대표들은 자기들이 중국 국민을 위해 얼마나 좋은 일들을 했는지 입에 거품을 물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지만 회의가 진행되는 내내 전염병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입도 붓기지 않았죠. 우한시 봉쇄 명령은 이

연례회의 후에 내려졌습다. 중공의 정치시스템에 뭔가 큰 구멍이 뚫린 게 분명합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언론인들은 진실을 보도하고 정부를 감시하며 국민들에게 엄정한 팩트만을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그런 역할을 하는 언론인은 없습니다."

"정부의 행위는 구제불능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분개해 비터 윈터에게 말

다"고요? '사명을 깊이 새긴다'고요? '국민의 행복을 추구한다'고요? 모두 헛소리입니다. 깡그리 국민을 호도하는 거짓 약속에 불과합니다. 사망자 수는 계속 치솟고 있는데 관리라는 인간들이 언론에 나와 주절대는 것은 죄다 개소리입니다."

그는 정부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면 앞으로라도 정작 중요한 정보는 모조리 차단하기만 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개별 관리들은 책임이 없다. 대신 "중공 체제의 보이지 않는 규정에 따라 모두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강제하는 정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 기자가 말했다.

진실을 밝히면 감옥행

언론만이 아니다. 의료진들 역시 침묵을 강요당한다. 1월 19일, 중국 동부 산둥(山東)성 빈저우(濱州)지(地)급시 어느 병원의 원장은 위챗의 직장 단톡방에 글을 올려 휘하 직원들에게 각각의 위챗 단톡방이든 다른 어떤 곳에서도 nCoV, 즉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올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우한중앙병원 소속 안과 의사로 작년 12월 30일, 그의 위챗 단톡방을 통해 nCoV 감염증에 대해 최초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리원량(李文亮)의 이야기는 세상 모두가 안다.

(14면으로 계속)

서머타임 3월 8일부터

2020년 서머타임(Daylight Saving Time)이 3월 8일(주일)부터 시작된다. 새벽 2시를 3시로 한 시간 빨리 돌려놓으면 된다. 교인들은 특히 이날 주일 예배시간에 늦지 않도록 7일 밤 1시간 먼저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다.



시론

스테인글라스 인생



은희곤 목사 (뉴욕 참사랑교회)

옛날 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유명한 건축가에게 새로운 왕궁을 건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건축가는 왕궁의 각방에 아주 좋은 거울들을 설치하기로 하고 멀리 다른 나라에 주문해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운반 도중에 거울 유리가 모두 산산조각이 나 버렸습니다. 건축가는 매우 실망하고 안타까워했지만 어찌하겠습니까? 작업자들에게 깨어진 유리조각들을 모두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쩌면 깨진 거울 유리가 더 아름다울지도 모릅니다." 그는 깨진 거울 유리조각들을 벽이나 창

에 붙이지는 제안을 했습니다. 건축가는 고심고심 끝에 버릴 바에야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어 깨진 거울 유리조각으로 무늬를 만들어 왕궁의 벽, 창, 기둥 등등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깨진 거울 유리조각마다 빛이 여러 방향으로 반사되어 들어와 건축가가 생각한 그 몇 배 이상의 찬란한 아름다운 왕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모습에 감탄한 왕은 깨진 거울 유리조각들을 붙이자고 제안했던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깨진 거울 유리조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생각을 하였는고?" 그는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양복점을 운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옷을 만들고 나면 자투리 천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천들을 모아 옷을 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때 저는 자투리 천으로 만든 그 옷들이 다른 어떤 옷들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깨진 유리도 더 아름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마음에, 참 아름다운 생각이 낳은 결과입니다. 이 부서진 깨진 거울 유리조각으로 만든 유리창이 '스테인드글라스'의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인터넷 자료 참조).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누구든 인생을 살다보면 잘 나갈 때도 있지만, 때론 곤두박질쳐 깨진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나 가장 밑바닥에 쳐 박혀 있을지라도 그리고 세상이 주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나와 관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그분의 자녀요 백성이 라는 '내적 가치',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어떤 처지와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조각조각 난 인생을 다시 이리저리 붙여서 가장 아름다운 스테인드글라스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 여기서 '선'은 '아름답다, 좋다'라는 뜻도 있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안에 이뤄지는'이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하나님은 나와 나의 자녀들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을 향해 당신의 분명한 뜻을 계획하시는 '설계자'입니다. 설계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성취시키십니다. 오늘도 바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ing, 현재 진행형'인 하루일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이 사실 즉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사고들까지도 서로 상호 작용시켜 당신의 계획이 결국 내 인생 안에 현실이 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입술의 불평과 마음의 불만을 넘어서 '범사에 감사'(살전5:18)할 수 있게 됩니다.

2020년 새해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미국독감', 세계적으로는 '신종코로나 19'의 확산과 지역사회 감염으로 불거진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지난주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출장을 다녀왔는데 20여년 동안 공황을 이용하면서 양 공황이 다 이렇게 한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다니는 것을 적극 삼가니, 이와 관련된 사업장들의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8면으로 계속)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경 / 생화학 / 기운 / 교회용품 / 영문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품전문
뉴욕 Tel. (718) 762-0011
www.bestsaver.us 917-863-0301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석도 및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영술,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췌신 특수촬영 비디오 내시경 시술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 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7

히즈핑거 (His Finger)
책 출판에 대한 문의는 히즈핑거
이메일 hisfinger8386@gmail.com
또는 전화 (718)886-4040 (323)665-0009

Elpis 헬퍼스 가정 사역부
3rd Healing Camp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 14:27)
*일정: 2020년 4월 13일 ~ 15일
*대상: 목회자의 아내
*회비: \$80
*장소: Mary & Joseph Retreat Center
*주소: 5300 Crest Road, Rancho Palos Verdes, CA 90275
*예약 및 문의: 박운송 목사 213-700-9928, 최숙희 사모 818-321-1486
Elpis는 헬어로 소망(Hope)이라는 뜻입니다.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배이사이드장로교회)



가족을 통해 교훈하시는 하나님

우리 집엔 큰 아이가 오래 전에 사다 놓은 작은 개 한마리가 있는데 집사람을 제일 잘 따른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우리 집사람은 별로 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가 자신에게 가까이 오면 'go

home'이라고 말하면서 저리가라고 한다. 개털이 자신의 옷에 붙는 것도 싫어하고 냄새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집사람이 집에만 들어가면 우리 집 개는 집사람을 어디든 지 따라다닌다. 안방, 부엌, 리

빙룸 등. 그래서 집사람은 계속 귀찮게 하고 발에 걸리니까 go home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느 날 그런 모습을 보고서는 웃으면서 개가 자기 이름이 go home이라고 알 것 같다고 하였다. 그렇다만 이렇게 집사람이 별로 개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 개가 집사람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집사람이 개에게 물을 주고 밥을 주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나는 강아지를 무척이나 이빠하는데 우리 집 강아지는 나를 잘 따르지 않는다. 집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집에 들어가는 날에는 나는 본 척도 안하고 집사람만 반가워한다. 내가 오랜 만에 출타한 후 몇 일만에 볼 때면 약간 반가워하는 정도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밥을 주거나 물을 주

는 일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나는 목회의 바쁜 일정 속에 개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집 개가 신기하게도 내 옆에 꼭 붙어 있을 때가 있다. 그것은 식사시간 때이다. 밥 먹을 때가 되면 우리 집 개는 꼭 내 옆 의자에 올라와 앉는다. 무슨 이유일까? 밥을 먹을 때 하도 민망하게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안되어서 내가 가끔 먹을 것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사람은 버릇 된다고 절대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보면 강아지는 자기에게 언제 어디서 누가 먹을 것을 주는가를 알고서는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다. 참 기가 막히지 않나?

이런 것을 빗대어 이사야서 1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 말씀은 모든 육축들은 자신들의 주인이 주는 밥그릇은 기억하고 배가고프면 그리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 뜻은 짐승들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밥을 주는 자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것을 모르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을 모른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표현하면 그들은 그들이 기르는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 분이 주셔야 가질 수 있고 그 분이 허락하셔야 모든 일은 가

능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일이 생겨도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정 안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것이다. 가족들도 자신에게 밥을 주는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서 배가 고프면 그리로 돌아가는 데 어찌 내 백성은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단 말인가 하며 한탄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언제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리고 무엇인가 필요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고택원 목사

(새한장로교회)



혼자만이 하는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낙랑공주와 호동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낙랑공주는 호동왕자를 사랑하여 조국과 아버지를 배반하고 나라의 보물인 자명고를 칼로 찢습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녀는 죽어가면서도 호동왕자를 사랑하였기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낙랑공주의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알아주는 이가 있는 맞사랑이었습니 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알아주는 이 없는 짝사랑이었습 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늘의 국경을 넘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몰랐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 합니다. "내가 널 미치게 사랑

3.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5절에 보면 "저가 모든 사 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산 자 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 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 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 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 니라"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그가 무엇에 목적을 두고 사느냐에 달려 있 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의식주 의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적인 으로 부족함이 없어도 참된 가치 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사람 이 자기만을 위해 살아갈 때 그 는 생의 의미와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 다. 하나님에게 삶의 목 적을 두면 그 순간부터 생은 눈 부시게 변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 늦은 나이에 외동 딸을 얻은 시인이 있었습니다. 옥이야 금이야 하고 귀하게 기 른 딸이 스무 살이 좀 넘었을 때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가겠

리가 주님을 위해 빼앗길 차 례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물 질을, 재능을, 젊음을, 정열을 주님 위해 빼앗겨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서 빼앗기는 것은 고통이 아 닙니다. 괴로움이 아닙니다. 도리어 기쁜 일입니다.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있느 라 빼앗겼던 시간 때문에 후 회한 적이 있습니까? 피땀 흘 려 번 돈을 사랑하는 자식의 대하 등록금으로 빼앗기는 것 이 슬프던가요? 사랑하는 가 족을 행복하게 하느라 빼앗긴 젊음이 한스러웠습니까? 결 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것은 후회스럽지 않은 거룩한 빼앗김이었을 것입니다. 이유 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입 니다.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 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사랑의 대상을 위해 무언가를 희생할 때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것입 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소중한 것을 희생한 사람들은 남이 알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 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 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미 친 사랑을 품고 살아가 보십시 오. 받는 것에 익숙하지 말고 주는 것에 익숙해 보십시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남을 사랑해 보십시오. 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께 바치기를 힘써 보십시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예수 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도 식어버린 가슴이 아니라 뜨거 운 가슴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냉랭한 가슴이라면 그 가슴에 예수 사랑의 불을 지르 십시오. 그래서 그 타오르는 사랑의 불길에 여러분을 삼켜 버리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살수 가 없습니다. 주님 없는 삶은 너무나도 무의미해서 견딜 수 가 없습니다. 나는 타는 가슴 으로 주님을 견이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전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에게 미치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 가 없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 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 이요 행복입니다. 나는 주님께 미친 사랑을 품고 평생을 살렵 니다. 썩처럼 솟아나는 열정을 품고 주님만을 영원히 사랑하 려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뜨거운 감동으로 고백이 터 져 나온다면 그 순간부터 사는 것이 행복임을 알게 될 것입니 다.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알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이토록 황홀한 것인가 하고 탄성을 지 를 것입니다. 예수 사랑에 미 친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에 부 러운 것도 부러운 사람도 없게 될 것입니다. taekwonkoh@hotmail.com

공산주의가 세력을 뻗치고 있던 1970년대에 전 세계 자유 진영의 대학생들이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 모여 국제대 학생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때 토의의 주제 중 하나가 "오늘날 우리 대학생들의 진정한 고민이 무엇인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타난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는 가 하면 "오늘날의 자유 진영의 젊은이들은 자기들의 정열을 온전히 불태우고 자기들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산주의 국가에 사는 대학생들은 공산주의 라는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자기 들은 열 번이라도 죽을 수 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무슨 매력 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스탈린과 경쟁하던 트로츠키가 멕시코로 망명한 후에 암살 당하기 6개월 전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작성했던 유언장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식을 깨진 이래 43년의 생애를 나는 혁명가로 살아왔다. 마르크스주의의 가치 아래 투쟁해왔다. 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가요, 마르크스주의자이며, 변증법적 유물론자다. 인류의 공산주의 적 미래에 대한 내 신념은 조금도 식지 않았으며, 오히려 오늘 날 그것은 내 젊은 시절보다 더욱 확고해졌다. 훗날의 세대들이 모든 악과 억압과 폭력에서 벗어나 삶을 마음껏 향유하게 하리라!"

트로츠키는 미래에는 전 세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될 것이며 그 세계는 부가 고르게 분배되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매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황된 꿈이었고 역사 속에서 실패한 이론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위해 자신의 정열을 불태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을 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가슴이 뛰고 피가 끓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사랑에 미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포로가 되어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1. 왜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음"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주님은 목숨을 버리기까지

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그토록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이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마 22: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말을 한 마디로 한다면 "미치도록"입니다. 목숨 걸고, 죽도록입니다. 예수 사랑에 미친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1세기에 베드로의 후임으로 안디옥교회의 감독이 되어 근 40년 동안을 사역한 이나티어스는 AD 107년경에 체포되었고 순교 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행복감을 주는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사랑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 가슴 몽클한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뭉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하나님의 기막힌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버리신 기막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양에 와서 선교했던 유럽의 한 선교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천당에 가고자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까 두려워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략... 축복을 바래서나 상급을 바래서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신 당신이 너무도 좋아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포로가 되어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뜨거운 가

암송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원형경기장에서 그는 사자의 밥이 되어야 했습니다. 로마교회는 그의 구명운동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이나티어스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말라. 내가 살아날 줄도 기대하지 말라. 나는 한 알의 밀알로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지는 깨끗한 빵 한 조각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만 있다면 뜨거운 불에 타죽든지 칼에 목 베임을 당하든지 짐승의 이빨에 찢겨 죽든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있을 뿐이다."

예수 사랑에 미친 사람의 담대함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가슴속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활화산처럼 뜨겁게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2.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예수 사랑에 미친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3-15절

하여 목숨까지 버렸으니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다오" 주님은 당신의 짝사랑이 이제는 맞사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맞사랑은 서로가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뜨거운 가슴으로 겨냥하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짝사랑의 아픔이 아닌 맞사랑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를 미치도록 사랑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행복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 사랑의 대상과 결혼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현재 아내나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면 그 분은 예수님도 미치도록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어떤 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면 그 분은 자신의 아내나 남편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미치게 사랑하면 그 사랑이 신비하게 흘러 넘쳐서 부부 사이의 사랑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부가 서로를 미치도록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고 했습니다. 70이 넘는 아버지는 딸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선교사로 가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지 않겠나?" 딸은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두고 떠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요. 저 아버지를 정말 사랑해요. 그러나 저는 지금 가야만 해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요"

마침내 딸이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딸을 태운 배가 멀리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하였음이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던 아버지는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 "이천 년 전에 죽은 로마의 사형수인 예수여 그대는 나에게서 심장과 생명을 도려가는구나. 그대는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그대는 산 자인가 죽은 자인가. 어찌하여 내 품에서 생명 같은 딸을 빼앗아 가는가. 생명의 약탈자여, 사랑의 약탈자여"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생명의 약탈자가 아닙니다. 사랑의 약탈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약탈당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약탈당하시고 빼앗기셨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

10년을 교회 다녀도 자신의 인생에 잘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 10년을 성경 공부 하여도 자신의 삶에 변화가 없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 들으면서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계속해서 10년을 다녀도 삶에 좋은 일과 변화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에게 교회와 목사는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될 따름일 것이며, 자신은 원망과 불평의 주체가 될 따름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은가? 내가 얼마나 모질고 질긴 사람이었으면 10년을 다녀도 변화와 열매가 없을지? 물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만 있어도 그는 결코 교회와 목회자를 원망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자신의 인생을 원망과 불평으로 잃어버린 10년으로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궁극적인 관점의 변화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인물이 고집스럽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찬 야곱의 인

생각했던 것이다. 엄마 리브가의 계획에 야곱도 선뜻 동의하고 순종한다. 야곱이 그것을 거부했어야 했음에도, 그는 그 모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바른 일이 아니었다. 결국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에게서 받게 되지만, 현실로 볼 때 야곱은 부모님의 집을 떠나야 했고,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

세속적인 생각

야곱이 고생했던 이유는 그의 마음이 언제나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노중에 베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돌베개를 하고 누웠던 돌을 제단삼아 기쁨을 보듯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을 섬기며 심일조를 드리며 온전히 살 것을 약속한다.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증거이다. 은혜 받은 사람은 결심한다. 결단한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에 그 감동을 살

복잡한 인생의 시간이었다. 연애하고 일하고 아이 낳고 그렇게 살다가 젊음의 세월을 모두 보내게 되었던 것이다. 그 시작과 과정과 결론에 그의 고집스런 생각들이 숨어 있었다. 야곱은 또 삼촌 때문에 재산을 모을 수가 없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야곱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일했지, 삼촌을 위해서 봉사했던 것이 아니었다. 가게 주인이 일꾼을 고용할 때를 생각해 보라. 직원을 고용하면서 주급을 약속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을 하면서 보니, 일이 너무 잘되어서 주인이 부요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랬더니 어느 날 주인을 찾아가서 자기 때문에 일이 잘 되고 있는데, 왜? 내게 더 많은 돈을 주지 않느냐고 따진다고 하면 말이 되기 어렵다. 처음에는 일이라도 시켜주면 감사하겠다고 해 놓고 마음이 바뀐다. 야곱이 삼촌에게 그러한 태도를 가졌던 것이다. 결국 야곱은 삼촌으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가지고 야반도주를 감행한다.

맞아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순간에도 야곱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베엘로 올라가라'는 음성이었다. 야곱은 그 말에 순종하여 그동안 자신의 집안에 있던 모든 이방신상을 제하여 버리고 베엘로 올라가 단을 쌓으며 예배를 회복한다.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에는 궁극적인 관점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궁극적인 관점의 변화

야곱은 하나님의 집, 베엘에 머물며 예배의 단을 쌓으며,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 가장 먼저 요셉의 죽음 앞에서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애통한다. 한마디로 회개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식들의 사정을 잘 안다. 서로간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음을 웅히 안다. 자식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말할 때, 그는 짐작했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유럽에서 종교개혁 후에 카톨릭과 신교간의 전쟁이 30년간 일어났다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었는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팔로스버디스 김 권사

A: 워싱턴 디시(Washington DC)에 가면 미국의 "한국전쟁(Korean War)기념관"이 있는데 그곳은 6.25전쟁 기념관으로 거기에는 "Freedom is not free"란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번역하면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도에서 Korea란 나라도 잘 모르는 20대 초반의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6.25전쟁에 참여하여 5만5천명이나 죽었습니다.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한국을 건져 자유를 준 것입니다. 공산주의로 부터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도 공짜가 아닙니다.

유럽 역사에서 한번 그 예를 들어보면 질문한 대로 30년전쟁(AD 1618-1648)이 있었습니다. 1517년 독일의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을 붙인 후로 스위스의 쾰른교

신, 구교간 30년전쟁 평화조약으로 끝났지만 양측 모두 큰 피해

리, 프랑스의 칼빈을 통해 종교개혁운동이 유럽에서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난 것이 17세기의 반종교개혁운동입니다. 영어로 Count-Reformation이라 합니다. 그래서 반종교개혁세력인 카톨릭 즉 구교는 종교개혁 세력인 신교를 무서울 정도로 핍박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을 종교재판에 회부하여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중에 성경을 번역한 위클리프나 안 후스 같은 자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나고 100년 후에 생긴 것이 바로 유럽의 30년전쟁입니다. 개신교를 따르는 국가와 로마카톨릭 즉 구교를 따르는 국가 간의 종교전쟁입니다.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은 신교의 편을 지지했고 스페인, 오스트리아, 독일은 구교를 지지했습니다. 사실 전쟁을 1년만 해도 무섭고 지루한데 30년전쟁은 얼마나 지루하고 사망자 수가 많았겠습니까? 전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전쟁은 신교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30년전쟁은 양쪽에 피해가 다 컸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나라가 독일과 체코인데 독일은 인구 800만명이 죽었습니다. 인구 30%가 이 전쟁에서 죽은 것입니다. 국토도 전쟁으로 망가져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후에 독일은 회복하는데 거의 100년이 걸렸습니다. 이 30년전쟁이 끝난 후에 베스트팔렌조약(Peace of Westphalia)이 맺어지게 되었는데 이 조약은 한마디로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는 평화조약입니다. 로마카톨릭교회가 신교를 신앙의 차이로 이유로 핍박해서는 안된다는 조약입니다. 구교를 선택하든지 신교를 선택하든지 종교는 개인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30년 동안 수많은 피를 흘리고 얻은 귀한 교훈입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관점의 변화, 나의 몫이 아님

-성향, 생각, 고집-

생이다.

경쟁적인 성향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매우 경쟁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다.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온 형 에서의 배가 고팠다. 야곱이 그것을 그냥 퍼서 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러나 야곱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이 가진 장자권과 죽 한 그릇을 바꾸게 된다. 겉으로 보면, 그냥 별 불일 없는 약속으로 보인다. 그들이 그 말을 할 때 무슨 서로 간에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야곱의 생각은 집요했고, 마침내 장자권 싸움은 얼마 후 현실이 되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 들어서 앓을 볼 수 없는 때가 찾아왔다. 그때 이삭은 큰 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 주려고 했다. 그때 그의 아내 리브가는 두 아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다. 그것을 보면, 어머니 리브가의 믿음은 참으로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믿음은 잘 기억하는 것인데,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법인데, 이를 기억하는 리브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을 실행하는 리브가의 방법에는 문제가 있었다. 남편하고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 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도적놈처럼 그 장자권을 가로 채려고 남편 이삭을 속이는 방법을 사용했다. 너무 조금하게

의 헌신으로 연결한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세속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았다. 삼촌 집에 들어가 머물면서 그의 눈에 삼촌의 딸, 라헬이 눈에 들어왔고, 마침내 사랑에 빠졌다. 그는 한번 생각한 것은 누가 뭐래도 성취하고 마는 성격이었다. 이것을 고집이라고 한다. 고집은 자신을 고난 가운데 이끌어난다. 그는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힘을 써서 삼촌을 위해서 일한다. 삼촌에게 속아 갑절로 일하게 되어도 상관하지 않았다. 마침내 라헬을 얻어 결혼을 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라헬은 자기 몸종을 야곱에게 내어주면서 자식을 낳으라고 한다. 그 이유는 자기 언니 레아가 아이를 잘 낳았기에 그 경쟁에서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경쟁이 심해져 자매간에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까지 야곱의 아이를 낳게 한다. 결코 옳은 선택이 아니었다. 베엘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야곱은 마땅히 그것을 거부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전혀 거부하지 않고 열심히 자신의 생각과 형편을 따라갔다.

고집스럽고 질긴 생각

야곱은 열 두 아들과 딸을 하나 얻었다. 그러나 행복하지 못했다. 그 집은 언제나 복잡했다. 조용할 날이 없었다. 매일 형제들끼리 싸우고 아내들끼리 싸웠다. 그의 젊은 시절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처럼 야곱의 젊은 시절은 한마디로

결국, 라반이 군사를 이끌고 오지만 하나님의 간섭으로 오히려 손자들을 축복하고 라반은 돌아가게 된다. 인생이 연약함이 있어도, 베엘로 돌아오는 그 걸음을 하나님께 기쁘게 보신 것이다. 그러나 근본이 변하지 않으면,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이제는 형 에서가 이십년 만에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군사들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날 밤에 야곱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강 건너로 넘겨 버리고 암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기 시작한다. 늘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야곱을 만나주신다. 그리고 그의 이름까지 바꿔주셨다.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지극한 간섭으로, 그 다음날 그렇게 두려워하던 형 에서와의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야곱은 곧장 베엘로 올라가야 했다. 그런데 야곱이 형에게 말한다. '형님, 조금 내가 이 곳에 머물다가 뒤따라갈 테니 먼저 가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였음에도, 실제 그는 그의 눈에 들어온 살기 좋은 세제를 놓칠 수가 없었다. 결국 그는 소와 양을 키우기 좋은 세제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심어 밭을 그곳에 머물게 된다. 그곳에서 결국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 딸 '디나'가 그곳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한 것이다. 그 일로 인해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라는 거룩한 예식을 사용한다. 큰 살인극을 벌이게 된다. 하나님께서 머물라 한곳에 머물지 않으면 언젠가는 문제가 터지는 것이다. 이 일로 인해 야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간을

을 것이다. 아니면 자식들이 어린 동생하나 챙기지 못함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표현하지 않는다. 그저 애통할 따름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이다. 베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참된 예배자의 변화의 모습이다.

그는 또 양식이 떨어졌을 때, 자녀들을 보내어 애굽에서 양식을 구해오도록 말한다. 자녀들은 동생을 불모로 잡히게 하면서까지 양식을 구해오지만 그 양식마저도 떨어지게 되었다. 그때 야곱의 하는 말이 무엇인가? 양식을 조금만 더 구해오라고 말한다. 그의 인생은 다다익선의 삶이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 인생이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다. 아내도 많으면 좋고, 자식도 많으면 좋고, 소와 양도 많으면 좋고, 하나님이 싫어하셔도 애 키우기 좋고 재산을 번식하기 좋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도, 아무 곳이라도 집과 우릿간을 짓고 살며, 자녀들이 영적으로 어떡해도 그저 가족의 양만 많아지면 아무 일 없는 듯 지내는 인생이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많은 것과 적은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깨달은 것이다. 죽이시던 살리시던 예배자가 가지는 지족하는 마음이다.

야곱은 아들 요셉을 통해 바로를 만나게 된다. 바로왕이 연세를 물으니, 험악한 세월 130년을 보냈다고 말한다. 드디어 그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각으로 이끌어왔던 인생이 허망하였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고백은 허망한 신세한탄을 탄식하는 비천한 것이 아니었다. 그 고백과 함

께 70명 먹고 살기위해 찾아온 이민자의 가장이, 당대 애굽나라의 바로에게 축복기도를 하는 것을 본다. 당신이 비록 강한 제국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치위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자가 왕임을 담대히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이다. 참된 예배자가 경험하는 담대함과 당당함의 표현이다.

야곱의 인생도 애굽에서의 17년 세월이 흘러 147세에 거의 임종이 가까운 시간이 되었다. 그때 요셉이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축복기도를 받으러 왔다. 일국의 총리가 곧 생명이 마감될 연로한 노인 아버지에게 자식의 축복기도를 구한 것이다. 그러한 기도의 요청에 대해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야곱이었지만, 그는 손을 얹어 손자들을 축복한다. 베엘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감격으로 지팡이 짚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한 변화된 참된 예배자가 야곱이었던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들면서 고난의 세월을 지나며 사람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강해지고 더 더러워지는 사람도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악질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길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교회 앞으로, 예배 앞으로, 나의 베엘을 향해 나아갈 때, 주께서 친히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것이다. 나도 나를 여찌할 수 없는 것이 인생 아닌가? 그러나 베엘의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 우리의 삶은 세월이 지날수록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화로우며 향기로울 것이다.

davidnjeon@yahoo.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필리핀의 중부 사마(CENTRAL SAMA)

보르네오의 섬 근처, 술루군도에 있는 몇몇 섬에 8만 천명의 필리핀 중부 사마족이 살고 있다.



이들의 해안지역과 섬에 살았다. 역사적인 증거들로 볼 때 사마족은 기원 후 천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의 고향을 떠난 것으로 밝혀져 있다.

삶의 모습

중부 사마족의 삶은 고기잡이, 항해 그리고 무역을 중심

으로 이뤄지며, 해안을 쭉 따라서 농사를 짓기도 한다. 술루제도 전역과 동부 사바(Sabah)에 이르기까지 코프라(copra, 코코넛 오일을 생산하는 말린 코코넛의 알맹이)가 주요 현금작물이다.

무역 역시 사마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래 전부터 해변에 사는 사람들은 뛰어난 항해기술로 이름을 날렸고, 말린 생선(trepang, 해삼), 진주, 진주껍질 등 그리고 다른 여러 해산물들의 주요 공급자로서 역할을 한다.

방어막이 잘 세워진 넓은 해안선을 따라 거주자들이 밀집해 있다. 지면이나 최고수위 표시(water mark)로부터 3m 정도 높이에 지어진 집은 보통 부엌이 딸린 한 개의 직사각형 모양의 방으로 이뤄져 있는데 물 위에 세워진 각각의 집들은 두꺼운 나무판이나 폭이 좁은

다리로 서로 연결돼 있다. 각 가정은 텀푹(tumpuk)이라고 불리는 더 큰 친족단위로 묶이는데, 이때 '텀푹'이라는 말은 집단(clusters)을 의미한다. 중부 사마족은 가족들과 가까이 살고 친족들과도 지속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다. 한 가정의 가장이 그 '텀푹'의 대변인으로 활동하기 위해 선출된다. 또 다른 공동체 단위인 교구는 같은 모스크에 속한 신도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이 교구들과 집단들이 한 소속이거나 동일한 경우도 있다.

신앙

중부사마 사람들은 거의 모두 수니파 무슬림이다. 이만(이슬람의 지도자)과 다른 모스

크관리들과 같이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 박식한 이들을 '파키'(paki) 혹은 '파킬'(pakil)이라고 부른다. 이 파키들은 거의 모든 중요한 의식을 주재하고 종교적인 상담가로 활동하며 감사제와 같은 작은 의례들도 집전한다.

무슬림들의 금요일 기도는 각 교구 모스크에서 수행되며 이 날은 한 주내 반복되는 날마다 하는 기도의 절정이 되는 시점이다. 또한 이슬람 종교력에는 라마단(이슬람교의 금식절기)과 마호메트의 생일 등이 포함돼있다.

중부사마족의 일부는 살아 있지 않은 대상에도 영이 있다고 믿는 정령숭배자(애니미스트)들이다. 죽은 자의 영혼은 무덤 주위에 존재한다고 믿으며 이런 때로는 영혼들이 제사를 원한다고 여긴 사람들은 이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친다. 어떤 무덤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힘의 원천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사반(Shaaban)의 달 동안에, 신(알라)은 죽은 자들의 영혼(roh)이 세상에 돌아오는 것을 허용한다고 여긴다. 이때 그 영혼들을 기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죽은 자들에게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무덤을 깨끗이 청소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1970년대 초기이래, 독립투쟁으로 인해 이 지역 원주민들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일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방대한 민족 재배치가 이뤄졌다. 현재까지도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은 여전히 매우 활동적이고 많은 살인과 유괴, 필리핀의 군대와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그 포악한 독립군들이 진정한 평화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체성과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환구시보 "신천지는 사교, 우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 신천지 신도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자 중국 매체가 신천지를 집중 조명하고 나섰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24일 "한국 언론 '신천지' 사교(邪敎)를 파헤치다: 우한에 마수를 뺏치려다 쫓겨났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신천지의 신도 중 1명이 '슈퍼 전파자'로 지목되면서 첨예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신천지와 교주 이만희를 '사회적 공해'로 지칭한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 "신천지가 수년 전부터 정계에 손을 대려 했고, 심지어 대통령 선거 운동에 참여해 정치권의 지지를 얻은 뒤 사이비 종교라는 신분을 세탁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천지가 2007년 대선 때 전국 12개 지부에 '신천지대외활동협조지침'을 하달해 신천지 신도들을 모 정당에 특별당원으로 가입시키도록 지시했으며, 2007년 전주에서 열린 모 당

의 대통령 후보 연설회에도 3000명의 신도를 동원해 세 과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 많은 종교전문가가 "신천지가 정계에 줄을 대려는 것은 정치권의 지지를 얻어 신천지증거장판 규모를 확장하려는 목적이 있고, 사교 신분을 세탁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환구시보는 또 신천지가 중국에도 진출하려 했으나 현지 공안에 발각돼 퇴출당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신천지가 2018년 우한에 신도들을 보내 100명 규모의 사무실을 여는 등 잠입을 시도했지만, 공안에 조기 발견돼 강제 출국 조치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천지는 한국 정통 기독교 교단들에 의해 사이비 종교로 지정됐다"며 "중국 정부도 '정통 교단'과 '사이비'를 가려내기 위해 한국 교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왔고, 일찍이 신천지를 '사교(邪敎)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신문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신천지를 강제 해산해 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와 23일 오후 22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서명했다는 소식, 신천지가 과거 언론을 고소했으나 법원이 "(언론이) 신천지를 반사회적, 반인륜적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지목한 것은 많은 진실한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결론"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사례 등도 보도했다.

美CDC, 韓 여행경보 '경고' 상향...중과 동급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등급인 3단계 '경고'(Warning)로 격상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역 사회 전파 단계에 이르자 이를 만에 제차 여행경보 등급을 상향했다. 미국 CDC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3단계 여행경보를 발령한 국가는 중국 본토를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사실상 중국에 버금간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CDC는 24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며 "불필요한 한국 여행을 자제토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CDC는 "노인과 만성질환자는 심각한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한국 내) 감염 지역에서는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CDC는 지난 22일 한국 여행경보를 2단계 '경계'(Alert)로 올린 지 이틀 만에 최고 등급으로 상향했다.

CDC는 부득이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야 할 경우 감염자와 접촉을 삼가고 청결치 못한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져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노인과 만성질환자는 한국으로 떠나기 전 의사 상담을 받도록 했다. 또 비누와 물을 사용해 2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알코올 함량이 60~95%인 세정

제를 사용해 항상 손을 청결히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화장실을 다녀온 후, 식사 전,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거나 코를 킁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CDC가 여행경보를 3단계 경보 등급으로 지정한 국가는 한국과 중국, 베네수엘라 3개국이다. 이들 중 코로나19 때문에 최고 등급으로 묶인 국가는 한국과 중국뿐이다. 베네수엘라는 홍역 등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고 의료시설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지난달 초 3단계로 지정됐다. 이를 전 한국과 함께 2단계로 상향했던 일본은 변동이 없었다. 최근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 중인 이탈리아와 이란도 2단계에 머물고 있다.

CDC와 별도로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는 한국을 여전히 2단계로 지정하고 있다. 국무부는 지난 22일 한국 여행경보를 4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강화된 주의 실시'로 상향한 바 있다. CDC가 이날 한국의 여행경보를 3단계로 올리면서 국무부도 조만간 한국 여행경보를 재조정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무부는 지난 2일 중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여행 금지'에 해당하는 4단계로 지정했다.

일본 정부는 대구와 경북 청도에 '불필요한 여행 자제'에 해당하는 감염증 위험경보 2단계를 내렸다. NHK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구에서 격리 조치와 집단 행사 자체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경북 지역의 특정 병원에서는 집단 감염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 및 관계 기관과 협조 하에 정보를 수집해 주의를 환기하려 한다"고 밝혔다.

담임목사 청빙

오하이오 에쉬타블라지역에 소재한 에쉬타블라 한인교회에서 하나님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실 담임목사님을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 1. 정규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으신 분으로 목회 경험이 있는자
2. 미국거주에 결격사유가 없으신분
3. 한국어와 영어 소통이 가능하신 분

제출 서류

- 1. 이력서
2. 본인 및 가족소개서(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포함)
3. 최종학위 증명서 및 목사 안수 증명서 각 1부 (사본)
4.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 동영상 2회분
5. 추천인(목회자only) 2명이상

제출처

이메일: sddkim206@gmail.com
연락처: (440)822-9390
우편메일: 2300 Austinburg Rd., Ashtabula, OH 44004

제출마감: 2020년 3월 15일

기타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에쉬타블라 한인교회

2300 Austinburg Rd., Ashtabula, OH 44004
koreanashtabula@gmail.com

전 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드립니다

전 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수정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신규 변경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Application form with fields for church name, address, phone, fax, email, and website.

*위의 내용을 편지나 또는 E-mail로 보내주시시오 4 번은 해당사항에 표시를 하세요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92. 배민수(1896-1968)

배민수는 구한말이었던 1896년 10월에 충청북도 청주에서 청주 감영진위대의 육군보병 부교였던 배창근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1907년에 아버지 배창근이 F. S. 밀러 선교사를 만나 기독교에 입문하면서 배민수는 교회에 출석했다. 이듬해인 1908년에 아버지 배창근이 의병 활동으로 체포되어 서대문 교도소에서 처형되던 때 그는 청년 기독교 학교에 입학했고, 3년 후인 1912년에 평양 숭실중학교 예비과에 입학했다.

숭실 학생이던 그는 엘리 M. 모우리 선교사를 지휘자로 한 중앙장로교회 성가대의 일원으로 전국을 돌며 음악선교활동에 참여했다. 그가 숭실 학생이던 1915년에 노백린, 장인환, 김형직과 연락하여 30명의 학생과 함께 대한국민회 조선지회를 결성하여 항일투쟁을 벌이다가 이와 관련하여 1918년 1월에 일경에게 붙잡혀 평양 교도소에서 1년간 복역했다. 1919년에 출소한 후 어머니와 누나가 거주하던 함경북도 성진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일어난 삼일만세운동에 가담하여 직접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선언서 5천 장을 만들어 나누었다.

이 사건으로 함흥 감옥에서 1년6개월의 영어의 몸이 되었다. 1921년 4월에 출옥한 그는 공부에 전념하고 1928년 숭실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였다. 평양 YMCA 총무이자 오산학교 교장이던 조만식의 영향을 받아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12명으로 기독교농촌연구회를 조직하고 농촌운동을 시작했다. 1930년에 그는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1년간 다녔다.

도미

배민수는 유학차 1931년 6월 10일에 미국 시애틀에 상륙한 후 곧바로 평양신학교 교장 사무엘 마렛의 모교이자 숭실중학교의 존경하던 은사 김인준이 졸업한 시카고의 맥코믹 장로교신학교에 입학했다. 시카고한인교회에 출석했던 그는 그해 7월 19일에

갈흥기가 본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하는 취임식에서 플루트 독주로 특별음악순서를 맡았다. 이날 장세운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강영소의 취임축사와 갈흥기 목사의 설교와 위해진의 피아노 독주도 있었다.



배민수 목사

1932년 조직된 기독교우애회를 통해

여 1938년 7월에 조선장로교회의 원로인 허섭 목사와 함께 그는 두 번째 도미하였다. 그는 시카고에 여장을 풀고 3년 동안 28개 주의 440교회와 단체를 방문하고 1,300여 회에 달하는 설교를 통해 9만 명을 만나 일본의 신사참배와 한국 기독교인에 대한 일본의 박해를 전했다.

뉴욕한인교회

배민수는 1941년에 프린스턴 석사 과정에 입학하여 조셉 로마드카, 존 맥케이 그리고 오토 파이퍼 등의 교수에게서 배우며 1943년에 졸업했다. 그가 프린스턴 재학 중 뉴욕한인교회에 출석했다. 1942년 부활절에 뉴욕한인교회에 참석하여 기도순서를 맡았고, 그해 여름방학 동안 선교 총회의 위임을 받아 몬테나 주에 있는 인디언 교회에 가서 12주일간 설교하고 돌아가는 길에 시카고한인교회를 방문하였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때 배민수는 워싱턴의 국무부와 뉴욕 국무성 전신 검열국에서 근무했다. 이 기간 1943년 11월 17일에 뉴욕 한인예배당에서 국민회 주최로 순국선열 기념식에서 그는 소감을 발표했다. 그해 다음 달에 뉴욕 재류 한인 유지가 카이로 선언으로 연합국의 루스벨트,

인교회 교인을 위한 만찬회였다. 본교회 친교실에서 본 교회 교인은 그들을 기쁘게 보내는 정을 나누었다.

1945년 3월 1일 하오 8시 뉴욕한인예배당에서 뉴욕한인 임시 공동회 주최로 삼일절 기념식을 거행했다. 60여 명의 동포가 모인 가운데 김 경의 사회로 거행한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함창하고 윤응팔이 기도한 후 사회자가 식사를 담당하고, 전처선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정성희의 어린 딸 정열리노의 한국어 독창, 김세선의 삼일운동 약사, 음악 합창, 김세선의 연설이 차례로 있는 다음 소감 순서에서 배민수는 이원순, 서경순, 명신흥에 이어 소감을 발표했다. 소감 순서에 이어서 기부금 모금이 있는 후 이민 2세 청년 3명이 강단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 삼창으로 폐회했다.

일본의 진주만 폭격 이후 뉴욕에서 있는 자유의 여신상의 손에 든 화불에 불을 켜지 않았는데 1945년 5월 8일부터 유럽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여 다시 불을 켜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뉴욕한인교회 교인들이 꿈에도 그리던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기도의 불을 켜줄 것이다.

그해 6월 14일 하오 11시에 천세현이 64세로 부인과 2남 1녀를 남겨두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세상을 떠났다.

을 유족에게 보내주기로 법률 수속까지 완전히 하여 두었다고 배민수가 전했다.

배민수는 광복 후 미 군정의 군부 임무를 띠고 상항을 거쳐 정기원, 홍윤식, 김진홍, 이문상, 이병간 등 10여 명과 함께 1945년 11월에 귀국했다. 이로써 그의 뉴욕한인교회 사역은 그해 11월까지 약 1년간이다.

귀국

귀국한 배민수는 1947년 6월에 성도교회를 설립했다. 그 후 도미한 배민수는 가족과 함께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던 1948년 12월에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미국 맥카레스터 대학에서 명예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이듬해인 1952년 11월에 그는 대전에서 기독교 연합봉사회를 창설하고 그의 필생의 사역이던 농민운동을 재개했다.

1953년 11월에 대성교회를 설립한 그는 1956년에는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 내에 기독교 농민학원을 개원하고 원장에 취임하였고, 1958년에는 농촌 실천론인 '그 나라와 한국 농촌'을 간행했다.

1964년에 기독교여자농민학원을 설립하였으며, 그리고 2년 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삼애농민학원을 설립하고, 초대 원장에 취임했다. 삼애란 하나님 사랑, 농촌 사랑 그리고 노동 사랑이었다.

그는 1967년 말에는 대전 기독교 여자 농민학원을 합병한 재단법인 삼애 농업기술학원을 설립했다. 그리고 이듬해 1968년 8월 25일 새벽에 자택에서 향년 78세로 타계했다.

배민수가 작사하고 민요조로 작곡한 다섯 절의 농부가를 아래에서 소개한다.

1. 하나님주신 우리나라 편편옥도가 이 아난가/높은데 갈면 밭이 되고 낮은데 갈면 논이 된다. 2. 봄이 되면 소를 몰아 상평하평 논밭 갈고/씨를 뿌려 덮어노니 예루와 좋구나 씩이 낫네. 3. 여름이오면 비가 와서 아랫논의 웃음이 물대주고/모를 씹어 움켜 노니 예루와 좋구나 잘도 씀다. 4. 가을이 되면 추수하여 오곡백과를 쌓아 놓고/아들딸 삼남매 유기종기 햄쌀에 콩밥이 맛중구나. 5.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와 반도강산에 풍년이 와/하남은해 값으려고 이렇게 노래를 불러보세 /후렴: 예해 예야 상사디야

배민수의 사후 25년이 되던 1993년 8월 15일 광복절에 한국 정부는 배민수와 그의 부친 배창근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으니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었다. 삼애농업기술학원을 기증받은 연세대학교가 삼애기념사업위원회를 조직하고 매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므로 그의 애국정신이 계속되고 있다고 본다.

damien.sohn@gmail.com

항일투쟁으로 감옥살이 2회, 유학후 귀국 도미 2차례 미국서 독립운동, 뉴욕한인교회서 담임목사 1년 시무 해방 후 귀국 교회설립, 삼애농민학원 설립 등 사역

배민수는 신조의 일치, 인종 간의 형제화, 사회 경제의 부흥 등의 세 가지 실천과제를 통해 기독교 민족주의에 입각한 복음주의 실천을 꾀했다.

1933년 맥코믹 신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배민수는 그해 7월 초에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그는 농촌진흥이 조국을 구하는 길이라고 절감하고 조만식 선생의 집에서 기독교 농촌연구회를 재건하고 농촌운동에 투신했다. 그해 9월 선전에서 열린 조선장로교회 총회가 농촌부를 신설할 때 그는 초대 총무가 되었다. 이듬해 10월에 그는 목사안수를 받았다.

맥코믹에서 알게 된 미국의 여류재벌 그린리프로부터 4년 동안 연 4천 달러의 지원금을 받아 한국은 물론 만주까지 1주일 단위의 농촌계몽강연을 3년간 200회를 개최하였다. 그는 농촌부 기관지인 '농민생활'에 이어 1935년 3월부터 '농촌통신'이라는 월간 소식지를 간행했다.

주기철 목사의 권유로 배민수의 농촌운동을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으로 알아차린 일본 경찰의 검거망을 피하

처칠, 장개석 등이 전후 한국 독립을 약속한 때에 전쟁 후 한국이 독립되고 그 기초를 건설하여 2천6백만 동포의 생활 번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의 공업, 산업, 농업, 무력 등을 조사 연구하는 목적으로 경제연구회를 조직할 때, 배민수는 6인 장정 제정위원 중 한 사람으로 선임되었다.

1944년에는 배민수가 여러 기관의 임원으로 선정되었다. 그해 3월에는 한국부인회 동부지방회의 2인 임원과 2인 의사 중 배민수가 선정되었다. 그해 6월 한국 외교위원부가 협찬부를 조직할 때 교육부 협찬원으로 선임된 그는 4년 동안 1000회에 달하는 한국 소개 강연을 개최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박사학위를 하기 위하여 드류 대학교로 가는 김준성을 이어 배민수가 뉴욕한인교회 제6대 담임목사가 되어 1944년 12월 28일에 배 목사 환영 특별예배가 있었다. 배 목사의 첫 사역은 이듬해 1월 28일 세계 제2차 대전에 종군하는 서상복, 김주향, 김철규 그리고 이프링크 등 4명의 뉴욕한

경상북도 상주에서 태어나 소년이었을 때 도미한 그는 공립협회와 국민회에 가입하여 충성을 다했다. 그달 19일에 나성한인장로교회 김성락 목사의 주례로 장례식이 있었는데 배민수의 뉴욕한인교회는 그의 장례식에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달라고 부탁하였고, 조돈도 보냈다.

그해 7월 11일에 김희복이 별세했다. 락 아일랜드 워플에서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배민수가 그의 죽음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서 그곳 목사와 함께 장례식을 주례했다. 김희복이 일하던 주인 T. W. 그린에 따르면 그는 작년부터 그린의 집에서 일하였고, 지난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주인이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라고 하여도 듣지 않았고 약 2달 전에 입원 치료하였다. 김희복이 매우 신실한 사람으로 신임을 받아 그린의 부인이 그 인후사를 잘 처리하여 주었고, 그린 부인이 김희복의 모친과 삼형제의 사진을 보이면서 그들이 경성 송인동에 산다고 하고 김희복이 유산이 있으니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려 그 돈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몽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기도: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사택기도: 오전 05:45 Tel: (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Tel: (718)265-2584, www.fkcby.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9:30 영 아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pcpc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 찬양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청년부 오후 8: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513-1351, cheongs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종보기도: 오후 8:30 영아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hee@hotmail.com 70 Plandora Rd, Manhasset, NY 1103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사택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근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아누엘 신학교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 (52)333-3507-4111, hanimk@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pe MEX(멕시코)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13)



이운석 목사 (NY 부르클렌제일교회)

어거스틴(Aurelius Augustinus)의 "고백록" (4)

5. 고백록'의 구조적 흐름

총 13권으로 구성된 그의 고백록은 소설을 읽어내듯 쉽게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접에서 심리학, 철학적, 신학적 통찰력이 요구된다. 이 책의 1권에서 9권은 5권을 기점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하강과 상승의 대칭구조를 이루고 있다. 고백록은 책의 유전 구조의 흐름을 잘 알아야 이를 읽고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그는 성경구절을 삽입해 당시에 그가 고민했던 혼

에서부터 회심하고 어머니와 사별할 때까지(과거를 누림)의 내용 전개이다.

2부: 10권-현재의 자기를 철저히 고백한다(회심 후의 자신의 유혹과 성화를 위한 영적 싸움).

3부: 11-13권-11권은 창조와 시간(시간과 영원)을 다루며, 12권은 무로부터의 창조를 강조하며, 13권은 창세기1장에 대한 은유적 해석을 꾀하고 있다.

3)1권에서 9권까지의 구조(대칭관계)

심리학적, 철학적, 신학적 통찰력 요구...우리 삶도 되돌아볼 계기 3가지 의미: 하나님 은혜에 대한 찬양 고백, 죄의 고백, 신앙고백

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성경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반추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1)고백록의 세 가지 의미: 고백록은 복수인 "Confessions"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회심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의 고백이다. 나)과거의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다. 다)신앙의 고백이다. 그는 이 책에서 기독교 신앙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 고백록의 구조

1부: 1권-9권-자기의 출생

(1-9): 1권은 육신의 출생이며 9권은 영적인 출생(세례)을 다룬다. (2-8): 2권은 배나무 아래서의 타락이지만 8권은 무화과나무 밑에서 회심을 다룬다. (3-7): 3권은 키케로의 책과 마니교를 받아들이지만 7권은 플라톤주의 철학책을 받아들인다. (4-6): 4권도 친구들을 다루고 6권에서도 친구들을 다룬다. (5-5): 5권은 마니교 감독 '파우스투스'를 다루고 동시에 전환점이 되는 기독교 감독 '암브로시우스'를 만난다.

4)고백록의 의도 가)어떻게 기독교인이 되는가?(How to become Christians)-회심의 필요성을

다룬다. 나)어떻게 기독교인답게 살 것인가?(How to live as Christians)-윤리적인 삶을 다룬다. 다)기독교인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와 싸우는 성화의 삶을 역설한다. 라)교회가 선포하는 신앙의 내용을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기 위함이다.

6. 고백록의 전체 내용

제1권: 유년기와 소년기 회고(출생-15세)-쾌락과 죄악으로 타락한 시기

1. 서론

고백록 첫 부분에서 자신의 유아기와 소년기에 대한 회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고백을 한다. 그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포용하시는 하나님을 드높인다. 또한, 그토록 능하신 하나님께 자기 삶의 전체를 맡기며, 삶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있기를 간구한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은 제 자리를 찾아 움직이는 노력중이다.

(2)"그러므로 모든 것이 주 안에 있고, 주로 말미암아 있고, 주를 통해 있사오니 나도 당신 안에 있지 않으면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영혼의 기원에 관하여 선제설과 창조설과 유전설을 말하지만 정확한 것은 모르고 영혼의 순례만 안다.

(3)"당신은 항상 창조하시고, 보존해주시고, 완성케 하십니다"-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보존해주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이시다. 종말은 시간의 끝이고, 완성의 때이다. 그는 육신의 어머니와 영혼의 어머니(교회)의 품에 안겨 살다가 하늘 어머니인 영원한 예루살렘의 품에 안긴 사람이다.

가)유아기의 죄(원죄)는 울면서 젖을 달라는 것, 해로운 것을 울면서 달라는 것, 질투(나누어먹기를 싫어함)에서 발견한다. 나)소년기의 죄는 태만(놀기를 좋아함)에서 찾으며, 또한 해야 할 것은 안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데서 발견한다. 다)그는 세례를 받게 된다. 그 이유는 세례 받을 때 세례를 받기 전의 죄만 용서

고백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ad te),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in te)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은 그제야 비로소 온전한 안식을 취할 수 있다고 선포한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내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언제나 자기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하기를 소원한다.

(1)"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ad te)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의 편안하지 않습니다"(신앙의 주제)-창조는 본래적 삶이다.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것은 안정이 없다는 것이다. 왜 인간의 마음이 불안한가? 제 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사람

받고 세례 이후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에게 있어서 세례의 의미는 죄 용서의 표징이며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또한 유아세례는 부모의 결단에 의해 하나님께 바침이며, 교회 내에서의 양육을 결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결단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은총이며 이것이 유아세례의 이유로 대담한다. 죄로 오염된 인간은 타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이 필요하며 인성 교육이 중요함을 역설한다.

그는 1권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기도로 마친다.

younsuklee@hotmail.com

은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소망으로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할 따름입니다. 기도해야 이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분명한 믿음이 현실이 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지금은 모

부서진 조각조각들을 맞춰 아름다운 스테인글라스를 만들어 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대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pastor.eun@gmail.com

성 품 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자녀를 변화시키는 긍정의 법칙

하버드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로젠탈과 레노어 제이콥슨이 미국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무작위로 한 반에서 20%의 학생을 뽑아 담임교사에게 '지적 능력과 학업 성취의 향상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라고 믿게 했습니다.

8개월 후 동일한 지능검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지적 능력과 학업 성취의 향상 가능성이 높은 학생군'으로 믿게 한 20%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보다 평균점수도 높고 학교성적도 크게 올랐습니다. 선생님에게 긍정적인 태도로 인정을 받고 긍정적으로 자신을 대하는 아이들에게 긍정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긍정적인 태도(Positive Attitude)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아이는 실패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방향으로, 성공하는 길을 찾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지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희망을 찾아 생각하고 말하는 좋은 성품이 고난의 삶을 승리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살전5:16-18)는 편지를 후대에 남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아름다운 명령을 전할 때 정작 바울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런 반전의 메시지를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성품은 그 분을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성품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감옥처럼 느껴지더라도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성경이 전하는 탁월한 비결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 봅시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않는 불가능한 일이, 기적적으로 어떤 영통한 기쁨을 만들어 낼지 기대하며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만도 ~한데 내가 ~한다고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필자가 만든 좋은나무성품학교의 '긍정의 법칙'입니다. 아이들은 모방을 통해 가장 잘 배웁니다. 부모님이 먼저 '긍정의 법칙'을 말해 보세요. 그리고 아이들과 연습 삼아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것만도 속상한데 내가 (불평하고 억울해) 한다고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떠세요? '긍정의 법칙'을 연습하면서 우리 가정과 자녀의 인생에 숨어 있는 희망의 요소들을 찾아내어 더욱 행복한 순간순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goodtreeusa@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대학원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금요일예배: 오후 5:30(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9:30, 11:30 Tel.(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323)913-4498,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청년) 새벽기도회: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차성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213)388-7101,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1:30(영아) 주일 학교: 오전 11:00 밀물목성(월-금): 오전 5:30 토요일예배: 오전 6:30 토요한국학교: 오전 9:00 Tel.(562)691-0691, Fax.(562)691-0698, www.nachiban.org 1200 W. Lambert Blvd., Brea, CA 92822 (Lambert & Puente)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금요전양예배: 오후 7:00 새벽 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전 1:20 청년찬양예배: 오후 7: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 예배: 오전 1:20 청년찬양예배: 오후 7: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 Tel.(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949)854-4010 / bethel@d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머무는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213)909-2820 www.staychurch.org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주일예배 장소) Office: 106 S Hobart St, Los Angeles, CA 90004 (수요일예배 장소)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Tel.(213)381-2202, www.mjc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 Tel.(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90717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2:00(대학부) 주일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아예배: 오전 9:15, 11:30 영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949)854-4010 / bethel@d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셉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6:00(월-토)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323)737-3009, Cell.(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타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엘피스타역원(ELPIS)의 뜻은 소망(Hope)입니다. http://www.elpistafamily.org /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례기도원: 305일 24시간 운영 Tel.(714)446-6200, www.gracemj.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20(금) Tel.(310)325-4020, www.junimchurch.com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www.gccj.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714)646-9259 www.socalsunungchur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310)530-4040(CH), www.cornerstone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토요일예배: 오전 9:45(10부) 주일학교: 오전 11:30(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월-토)오전5:30(분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c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핼(PIM)선교회, 교회 담임목사: 이훈우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한미예배: 오후 1:00 교육부: 오전 11:00 Tel(213) 924-3340, pimission1004@gmail.com 3229 N. Verdugo Road, Glendale, CA 91208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수요일예배: 오전 6:30(토) 수요일모임: '마침내 일어나서'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목회서신



강인국 목사 (미시아나한인교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살리라”

필자가 사는 지역에서 자동 차로 약 40분 거리에 깊은 산 속에 기가 막힌 자연 온천이 있다. 일반 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100% 온천물이다. 그런데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꼬불꼬불한 깊은 계곡 길을 한참 동안 운전해 올라가야 한다. 계곡 입구에는 그 계곡에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죽은 사망자들의 숫자를 알리는 작은 사인이 있다. 필자는 그 계곡을 아내와 운전해 올라가려고 갔다가 조금 올라가다가 아내가 계곡이 무섭다고 하여서 그냥 내려왔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혼자 운전

을 하면서 계곡 길을 따라 산 정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깊은 계곡의 한밤중 시간에 자동차가 거의 다니지 않았다. 굉장히 긴장되고 으스스한 분위기를 느꼈었다. 자연 온천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싫든 좋든 반드시 그 계곡 길을 통과해서 올라가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 반드시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 만사형통의 나날이 주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성경이 말씀하

는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환상일 뿐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산 중턱에 위치해 있다. 온천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싫든 좋든 반드시 그 계곡 길을 통과해서 올라가야 한다. 고난 가운데 비밀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어지게 했다. 그런데 불뱀으로 물려 죽어가는 것이 사건의 마지막이 아니

다. 장대에 뿔뿔을 만들어서 높이 들게 하여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뿔뿔을 바라보면 살아나게 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하셨느니라”(롬5:8)고 말씀한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동시에 성경은 그 죄의 대가를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감당하셨다고 증거한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은 진노의 심판으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

고 믿게 하므로 영원히 살아나게 하는 것이다. 이 원리를 요즘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심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장대에 달린 뿔뿔을 쳐다보게 하므로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점점 더 심각한 타락과 부패의 일로 몰리고 있는 이 세대 사람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무서운 전염병을 통하여 진노의 채찍을 가하시면서 동시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가?

소에는 가지 말아라” 등의 메시지만을 내놓겠는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메시지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들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메시지다. 무서운 전염병과 민족적인 혼란스런 위기 앞에서 교회가 외쳐야 할 고유의 역할이 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더욱 크게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깃발을 더욱 높이 치켜들고 열정을 다하여 흔드는 것이다. 백성이 살아날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있다. 민족이 살아날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있다. 이 사실을 세상은 믿지 않아도 적어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로 믿어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날 길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dik0184@yahoo.com



미주성서화운동본부 창립제 17주년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

이사 40명으로 증원, 홀리클럽 활성화

미주성서화운동본부 창립 제17주년 기념행사

미주성서화운동본부가 지난 2월 17일 6시 30분 소망선교회에서 창립 제 17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 앞서 드려진 감사에 배는 최중현 장로(미주성서화 부이사장) 인도로 백은학 장로(LA 홀리클럽 회장) 기도, 진유철 목사 설교, 이종용 목사 축도로 진행됐다. 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성취와 민족복음화의 일환으로 시작된 성서화의 힘은 건물이나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예수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다”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던 바울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자”고 전했다. 이어 미주성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 이하 미주성서화)가 사역확산을 위해 임원단을 증원했으며 김경진 목사(기쁜우리교회)를 공동회장으로, 정찬용 변호사를 법률 자문으로, 김권수

목사를 지도 위원으로, 홍석자 권사, 이지락 장로, 김승현 회장 등을 이사로 위촉했다. 현재 미주성서화는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OC 대표회장), 이성현 목사(샌디에고연합감리교회, 샌디에고 대표회장), 임현수 목사(토론토 큰빛교회 원로, 캐나다 대표회장), 김상돈 목사(과테말라한인교회, 과테말라 대표회장)가 지역 대표회장 및 공동회장을 맡고 있으며,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와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도 공동회장이다.

미주성서화는 현재 35명인 이사를 40명으로 증원하고 주요 지도자 홀리클럽, 여성 홀리클럽, 목회자 홀리클럽, 신학생 홀리클럽 등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을 위한 △월례 구국기도회 △4월 청교도 400주년 기념 연합 포럼과 미 대통령 선거를 위한 기도회 △5월 미국을 위한 연합기도회 △9월 신학대학 연합설교 페스티벌 △10월 다민족 연합기도회 △국제성서화 대회 참가 △

도시 총력전도 운동 △트리스웰터 지원 △동성애 관련 법안과 반기독교 법안저지 운동 등을 2020년 사역 계획으로 발표했다. 성서화 운동은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거룩하게 하자”는 취지로 종교개혁자 칼빈의 제네바 성서화 운동을 모티브 삼아 1972년 고 김준근 목사를 중심으로 시작했다. 미주지역은 2003년 남가주 사랑의교회에서 박희민 목사(명예 대표회장), 송정명 목사(대표회장), 한기형 목사(전 상임회장)가 초창기부터 이끌었으며 교계 및 사회 지도자, 여성, 청년으로 구성된 각각의 홀리클럽을 통해 정례 예배와 기도회를 꾸준히 진행해오며 2008년 LA 다민족 성서화 대회, 2011년 11월 로즈볼 다민족 크레센트 크리스천센터 다민족 연합기도회, 2012년 10월 크랜서 크리스천센터 다민족 연합기도회, 2016년 4월 아주사 나우(Azusa Now) 다민족 연합기도회 등 대규모 기도 집회를 주도했다. (정리; 이성자 기자)

세기총 3.1절 메시지

3.1운동 정신 이어받아 밝고 생산적인 미래로!



대표회장 최낙신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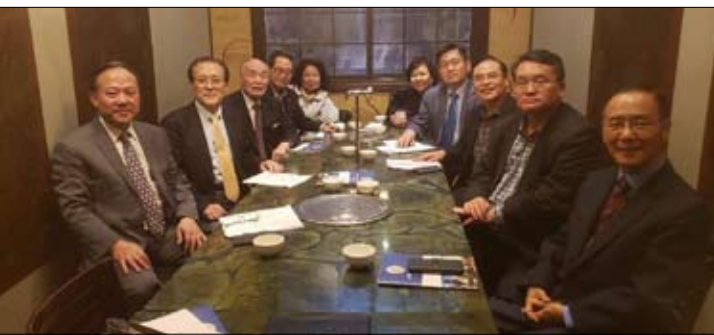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는 삼일절 제101주년을 맞아 전 세계에 흩어진 한국인 디아스포라와 함께 대한민국과 그 국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민족의 등대와 같은 귀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민족의 선열들이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와 폭력, 수탈에 맞서 인간존엄과 자유, 그리고 국가적 주권의 회복을 위해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3.1절입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창조한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고, 하나님 나라를 위임받은 국가 조선의 주권과 통치 권력을 무력으로 해체하는 악을 행했습니다. 3.1독립선언문에 나타나 있듯이 정의, 자유와 평화는 세계 모든 인류와 국가의 공통적 가치추구의 핵심사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선을 침략하여 식민지화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의 선조들은 3.1독립운동으로 조선은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자주국가임을 온 세계에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독립선언은 모든 인간은 자신의 자유와 생명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과, 자주국가로서의 주권과 통치행사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독립선언은 당시 조선은 물론, 아시아를 넘어 세계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가 함께 자유 속에서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게 하는 정신혁명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몇몇 일본 정치지도자들은 제국주의라는 과거의 향수에서, 그리고 그 감성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국내에서도 그런 현상을 당연시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권국가로 평화를 만들어 가려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처사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란 왜 존재합니까? 그것이 왜 인류사회에 필요한 것입니까? 주는 교훈이 있으므로 그 교훈을 통해 인간답게 살게 하고, 국가답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3.1절은 바로 그 교훈을 주는 것이기에 그 운동을 주도하고 전개한 선열들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불행했던 과거를 지속적으로 연상한다는 것은 창조적이지도, 그리고 생산적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민족의 안정과 번영을 꿈꾸며 목숨을 걸고 자유와 주권을 외쳤던 선열들의 3.1정신은 대한민국 자체의 밝고, 강건한 미래 창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으로 잘 받들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의지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밝고 생산적인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3.1절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가 온 누리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미기총 증경회장 임원 연석회의

제 22차 총회 8월 3-6일 필라델피아

미주한인기독교총협의회(미기총, 회장 민승기 목사) 증경회장 임원 연석회의가 갈보리 새생명교회(담임 민승기 목사)에서 지난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렸다. 첫째 날 애틀랜타 최낙신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된 연석회의에서 △미주한인기독교총협의회 창립목적에 준하는 사역을 꾸준히 이어 간다 △각

주의 교단장, 교협회장 친밀한 교류 및 강단교류) △북미지역 캐나다와 교류 △2020년 올해 청교도 이주 400년 기념행사 준비 △미주한인기독교총협의회 정관 개정을 위한 정관위원회로 6월초 뉴저지서 모임 △미기총 대표회장 각지역 순회(회원총원) △2020년 제 22차 총회는 오는 8월 3일부터 6일까지 필라델피아에서 개최한다.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렌 목사는 “죄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꿈을 무효화시키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죄를 갚으셨으며, 하나님의 선은 나의 행위에 바탕을 두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소명과 선물은 무조건 주어지고, 나를 해친 자들을 관대하게 용서하시고, 용기 있게 미래를 믿음으로 마주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말했다. 새들백교회는 지난 1980년 2월 24일 설립됐다. 현재레이크 포레스트에 위치한 메인캠퍼스를 비롯해 애너하임, 코로나, 엘마인 북부, 엘마인 남부, 라구나우드, LA, 뉴포트 메사, 랜초 파비스트라노, 샌 클레멘테, 샌디에고, 토렌스, 요바리디에



미기총 증경회장 임원 연석회의가 새생명교회에서 열렸다

다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이번 연석회의는 박희소 목사(뉴욕), 장석진 목사, 황희춘 목사(이상 뉴저지), 최낙신 목사(애틀랜타), 임형태 목사(덴버), 이대우 목사(필라델피아), 한기홍 목사, 민승기 목사, 샘신 목사(이상 캘리포니아)가 참석했으며 전국여성위원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기사제공: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지역캠퍼스를 두고 있다. 또한 독일 베를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홍콩, 필리핀 산타로사 에 해외캠퍼스를 두고있다. (박준호 기자)



새들백교회 창립 40주년 예배에서 리워렌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목적...”

새들백교회 설립 40주년 기념예배

새들백교회(담임 리워렌 목사) 설립 40주년 기념예배가 2월 22일과 23일 열렸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에 이어 리워렌 목사는 과거의 보잘것 없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꿈(약3:2)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워렌 목사는 “하나님의 목적은 변치 않으시며 나를 위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찾으신다”고 말했다. 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려면 정직하게 내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렌 목사는 “죄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꿈을 무효화시키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죄를 갚으셨으며, 하나님의 선은 나의 행위에 바탕을 두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소명과 선물은 무조건 주어지고, 나를 해친 자들을 관대하게 용서하시고, 용기 있게 미래를 믿음으로 마주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말했다. 새들백교회는 지난 1980년 2월 24일 설립됐다. 현재레이크 포레스트에 위치한 메인캠퍼스를 비롯해 애너하임, 코로나, 엘마인 북부, 엘마인 남부, 라구나우드, LA, 뉴포트 메사, 랜초 파비스트라노, 샌 클레멘테, 샌디에고, 토렌스, 요바리디에

미주복음주의장로회 총회장 장광춘 목사 설교

벨리호산나교회 설립 제 18주년 기념 감사예배

벨리호산나교회(이흥권 목사) 설립 제 18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2월 23일 오전 11시 미주복음주의장로회 총회장(장광춘 목사)과 임원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본 예배는 이흥권 목사의 사회로 시작돼 정영성 목사(주심자가교회) 기도, 장광춘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이날 특별 순서로는 새누리교회 김영재 목사의 섹스폰 연주와 이요한나 권사의 찬양을 동이 있었으며 장광춘 총회장이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다. (기사제공: 벨리호산나교회)



설립기념 행사를 마치고 기념 케익을 자르고 있다.

동부교계 게시판

미주동부 성품세미나

본지 '성품칼럼' 필자 이영숙 박사가 뉴저지에 GOODTREE USA미주본부를 설립하고 2월 29일과 3월 7일 미주동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2월 29일 오전 9시30분-12시30분 "Wow! Caby School", △오후 2시-4시30분 "루아흐 독서 영재교육", △3월 7일 오전 10시-12시 성품훈계학교 지도자 자격증 과정, △오후 1시-3시30분 성품몬테소리 지도자 자격증 과정, △3월 10일 오전 10시-12시 "복도리&자기회"

▲문의: (201)693-1976

담임목사 청빙

오하이오주 에쉬타블라한인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지원자격은 정규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안수 받은 목회경력자로 미국거주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한국어 영어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본인 및 가족소개서(최근 6개월내 사진포함), 최종학위 증명서 및 목사안수 증명서 각 1부(사본), 최근 6개월내 실교 동영상 2회분, 추천서 목회자 2명이 상이다. 제출마감은 3월 15일이며 이메일(sddkim206@gmail.com)이나 우편(2300 Austintown Rd., Ashtabula, OH 44004)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 (440)822-9390

목회자를 위한 조직신학 세미나

목회자를 위한 조직신학(기독론, 교회론) 세미나가 3월 23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뉴욕게셋마네교회(담임 이지용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덴버신학교 조직신학 교수, 아시아사역처장 정성욱 교수로 등록비는 10불이며 정 교수의 저서 1권을 증정한다.

▲문의: (917)693-2763

3.1절 기념 대뉴욕 구국궐기대회

3.1절 기념 대뉴욕 구국궐기대회가 이승만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미주총회/뉴욕지회 주최로 3월 1일(주일) 오후 5시 대동연회장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강사는 양동자 박사, 서장현 예비목사, 회비는 30달러이며 유관순 열사 최진자 영화가 5시 10분부터 시작된다.

▲문의: (718)539-5700 황일봉, (212)433-0724 남태현, (917)620-8964 박진하.

제 33기 뉴저지실버미션스쿨 개강

제 33기 뉴저지실버미션스쿨(SMF, 훈련원장 김중국 목사)이 3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뉴저지영광교회(담임 정광희 목사)에서 열린다. 7일 오후 2시에는 개강예배를 하며 비전트립은 5월 12-19일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로 가게 된다. 참가비용은 1천 달러.

▲문의: (201)694-2855, 995-3987

제 4회 앰배서더 컨퍼런스

차세대 지도자들의 영성 성장을 이끄는 제 4회 앰배서더 컨퍼런스가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뉴하트선교회(담임 정민철 목사)에서 열린다. "복음이 이끄는 삶과 사역"(살전1:5) 주제로 강사는 제라드 윌슨 목사, 에드 무어 목사, 9 마크스 미니스트리 등이 나선다. 워크샵과 멘토링 등으로 구성된 이 컨퍼런스 등록비는 100달러. 숙박과 식사가 제공된다.

▲문의: ambassadorsconference.org

개신교수도원수도회 청교도 특강

개신교수도원수도회(원장 김에스터 목사) 창립 9주년 및 청교도 400주년 특강이 3월 8일(주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이날 설교는 김영철 목사(이레교회), 특강은 이길주 교수(버겐커뮤니티칼리지 역사학과 교수)가 "청교도 정신과 미국의 정체성"(Puritanism and American Identity)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다. 3월 4일(수)까지 예약이 필요하다.

▲문의: (201)655-0199



제43회 미주성결교회중앙지방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1년간 3교회 설립, 회장 정민영 목사

제43회 미주성결교회중앙지방회, 임원선출

미주성결교회 중앙지방회가 2월 17일 필라한빛성결교회(이대우 목사)에서 제 43회 지방회를 열고 새 임원을 선출했다.

중앙지방회는 지난 1년 동안 3개 교회를 설립했다. 교회 이름과 담임목사는 다음과 같다.

뉴저지성결교회(김경수 목사), 갈보리교회(김주동 목사), 복음교회(이상민 목사).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정민영 목사(행복한

우리교회) △부회장 이기용 목사(뉴욕성결교회) △장로부회장 김은국 장로(열방교회) △서기 김동권 목사(새사람교회) △부서기 엄종렬 목사(필라소망교회) △회계 안성주 장로(새사람교회) △부회계 백행원 목사.

중앙지방회는 남부감찰 5개 교회와 중부감찰 3개 교회 그리고 북부감찰 9개 교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퀸즈장로교회 설립 46주년 기념예배에서 김성국 담임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복음이 보이는 교회로!”

퀸즈장로교회 설립 46주년 기념예배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설립 46주년을 맞아 2월 23일 오후 4시 기념예배를 드렸다. 이날 장로은퇴, 명예권사 임직, 장학생 선발 등의 순서를 가졌다.

김성국 목사는 “복음이 보이는 교회”(살전1:1-7)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장영춘 원로 목사님과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의 열매로 되어진 퀸즈장로교회”라며 “첫째,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자 둘째, 이웃에게 사랑을 보이자 셋째, 자신에게 소망을 보이자”고 역설했다.

김 목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익숙한 것, 편리함을 버리고 다민족 교회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하고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최근 중국에 마스크 등을 극적으로 보냈다고 소개했다. 또 “소망의 적절한 표현은 찬송”이라며 “어려운 이민의 현실 속에서 소망을 인내로, 찬송으로, 예배하며, 예수의 소망을 나타내온 퀸즈장로교회가 복음이 보이는 교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국 목사 사회로 글로리아시어즈

의 서창에 이어 시작된 예배는 기도 홍승룡 장로, 성경봉독 송요한 목사, 찬양 찬양대, 말씀 김성국 목사, 46주년기념영상, 화답찬양 글로리아시어즈, 장로은퇴식, 명권사 추대회 수여, 답사 김용생 장로, 격려사 허경화 장로, 장학금 수여, 글짓기 발표 장학생 대표 이정환, 축복 기도 김도현 목사, 특별찬양 아이노스, 광고 첸위지 목사, 축도 김성국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22년간 임직하고 은퇴한 김용생 장로는 답사에서 교회와 원로목사, 담임목사에게 감사한다며 “은퇴가 쓸쓸하고 외로운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새 길을 열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라고 말하고 “자랑스런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하게 된 것을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명예권사로 6명(장진숙, 조영숙, 박영재, 공영순, 조제인, 주애자)이 추대됐다.

장학생은 초(2명), 중(9명), 고(8명), 대(9) 등 총 28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유원정 기자)



뉴욕실버선교회 제 30기 개강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자!”

뉴욕실버선교회 제 30기 개강예배

뉴욕실버선교회(회장 김재열 목사)가 주관하는 뉴욕실버선교회 제 30기 개강예배가 2월 24일 저녁 8시 뉴욕센트럴교회에서 열렸다.

회장 김재열 목사는 환영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며 중국 현지에서 제작된 동영상을 보여줬다. 동영상은 지난 10년간 거리전도해온 현지 기독교인들이 이번에는 마스크를 나눠주며 전도하는 모습으로 실버선교사들에게 도전했다.

김재열 목사는 “뉴욕보다 큰 도시 우한은 교인 2만명 교회가 2개가 있을 정도로 교회가 많았는데, 최근 40개 교회가 폭파됐다”며 “가장 행복한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 기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전파에 도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개강예배는 김경열 목사 인도로 조영찬 목사의 경배와찬양, 대표기도 권영국 목사, 성경봉독 황달연 장로, 찬양 실버미션합창단, 설교 송병기 목사, 헌금기도 최우석 안수집사, 환영사 김재열 목사, 축사 이성현 목사, 격려사 박마이클 목사, 축무 단장 최윤자 권사 외, 축하연주 제시 유 교수, 인사 및

광고 이형근 장로, 축도 한재홍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송병기 목사는 “증인”(행 1:8)이라는 제목의 설교 시작과 마침에서 찬송가를 불렀다.

송 목사는 “우리가 사는 묵적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성령이 임해야 한다. 성령을 받으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죽는 날까지 증인이 되자”고 전했다.

송 목사는 이날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신앙 간증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송병기 목사는 뉴욕실버선교회 초창기부터 김재열 목사와 동역해왔으며 이성현 목사와 박마이클 목사는 이번 학기 강사로 초빙됐다.

뉴욕실버선교회는 30기를 마치고 5월 11일부터 16일까지 과테말라로 단기선교를 떠난다. 현재 22명이 신청했으며 25명으로 마감한다.

자세한 문의는 훈련원장 김경열 목사(917-963-9356)나 사무처장 이형근 장로(646-220-8222)에게 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뉴욕장로연합회 제73차 조찬 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노회장 조성희 목사 등 임원개선

KAPC 뉴욕남노회 제 18회 정기노회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남노회 제 18회 정기노회가 2월 24일 라크랜드 새교회(담임 조덕남 목사)에서 개최됐다.

노회장 조덕남 목사의 사회로 권영국 목사가 기도하고,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제목으로 조성희 목사가 설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원개선이 있었으며 △삼바비부 조직을 개선하고 △뉴욕센트럴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는 강윤석

목사와 이정환 목사를 노회원으로 허입했다.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조성희 목사(후러신장로교회) △부노회장 임흥섭 목사(덴버 사역) △서기 박준영 목사 △부서기 조영찬 목사 △회록서기 심 언 목사 △부회록서기 이영록 목사 △회계 영명교 장로 △부회계 박덕수 장로.

(기사제공: 뉴욕남노회)



KAPC 뉴욕남노회 제 18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CBSN 제3회 세계찬양대합창제 발대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CBSN 제3회 세계찬양대합창제 발대식

CBSN(뉴욕기독교방송·사장 문석진 목사) 주최 제3회 세계찬양대합창제(이하 찬양제) 발대식이 2월 18일 저녁 뉴욕평화교회(담임 임병남 목사)에서 열렸다.

문석진 목사는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 설립된 CBSN이 제3회 합창제를 유럽에서 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익금은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될 것”이라며 “합창제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합창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고 인사했다.

오는 5월 2일(토) 오후3시 30분 오스트리아 비엔나 뮤직 페어라인 황금홀에서 열리는 찬양제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시104:33) 주제 성구로 한국의 서울장로성가단, 예성사 모찬양단, 미주의 CBSN합창단, 미주여성코랄, 비엔나의 비엔나교회연합합창단, 비엔나 여성합창단 및 비엔나한인소

년노회합창단이 참여하고 스페셜 게스트 피아니스트 세라장이 함께 한다.

1부 예배는 김경열 목사 인도로 CBSN합창단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에 이어 기도 이수영 목사, 성경봉독 최재복 장로, 특송 CBSN합창단, 설교 문석호 목사, 헌금기도 한준희 목사, 헌금특송 테너 정보영, 임병남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2부 발대식은 홍보영상 및 상영, 준비위원장 문석진 목사의 인사 및 경과보고, 격려사 송병기 목사, 축사 이준성 목사로 계속됐다.

3부 합심기도는 안경순 목사, 심화자 목사, 박마이클 목사가 제목에 따라 인도했으며 4부는 친교로 이어졌다.

앞으로 CBSN사무실과 여러 교회에서 10회의 준비기도회가 열리며 파송식은 4월 21일(화) 오후 8시로 예정돼 있다.

한편 CBSN방송은 합창단원으로 동참하거나 찬양선교 동반자를 모집하고 있다(718-414-4848).

(기사제공: CBSN)

“Knowing, Being, Doing의 믿음생활”

뉴욕장로연합회 제73차 조찬 기도회

뉴욕장로연합회(회장 송윤섭 장로) 제73차 조찬 기도회가 2월 20일 오전 8시 홀러싱나사렛교회(담임 박해림 목사)에서 열렸다.

기도회는 친교부회장 배상규 장로 인도로 다민족선교대회 준비위원장 오강석 장로의 기도, 박해림 목사의 설교, 합심 통성기도와 찬양부회장 김재관 장로의 마감기도, 장로연합회중앙단의 특송, 감사 남태현 장로의 헌금기도, 회장 송윤섭 장로의 인사, 홍보부회장 신승룡 장로의 광고, 박해림 목사의 축도, 선교위원장 임형빈 장로의 식사기도로 진행됐다.

박해림 목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골1:24-29)이란 제목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어디로부터 왔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있는느냐가 중요하다”며 “Knowing, Being, Doing이 조화를 이루는 믿음생활을 해야 한다”는 요지의 설교를 했다.

Doing이 조화를 이루는 믿음생활을 해야 한다”는 요지의 설교를 했다.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박해림 목사의 사역과 홀러싱나사렛교회를 위해 △2월 21일 심장수술을 받는 전 회장 김영호 장로를 위해 합심해 통성 기도한 후에 김재관 장로가 마감 기도를 했다.

뉴욕장로연합회는 이날 헌금 합회중앙단의 특송, 감사 남태현 장로의 헌금기도, 회장 송윤섭 장로의 인사, 홍보부회장 신승룡 장로의 광고, 박해림 목사의 축도, 선교위원장 임형빈 장로의 식사기도로 진행됐다.

74차 조찬기도회는 3월 19일(목) 오전 8시 좋은목사감리교회(담임 김신영 목사)에서 가질 예정이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OC교협 주최 OC 기관장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이 땅에 공의를 실현해 가자!”

OC교협 주최 OC 기관장,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

OC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박상목 목사, 이하 OC교협)는 지난 2월 15일 오전 7시 부에 나 팍에 위치한 로스 코요테 컨트리클럽에서 OC지역 기관장,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주स्थ철 목사(부서기)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 강신옥 장로(OC장로협의회 회장)가 대표기도를, 이현옥 목사(OC여성

목사회 회장)가 성경봉독(역대 하7:13-14)을, 정희숙 집사(선한목자장로교회)가 특송한 후 박상목 목사가 ‘그 땅을 고칠 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박 목사는 “불확실성의 시대이자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정의를 구하고, 둘째, 진리를 찾으며, 셋째, 간사한 것이 없으며, 넷째, 이 땅의 공의를 실현해 가는 자”들이라고 말했다.

김용철 목사(서기)가 OC교협 소식을 전한 후 정영수 목사(운영이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김종대 장로(OC한인회 회장), 황인상 부총영사, 최석호 주하원의원(캘리포니아주 68선거구)이 격려사를, 미셸 박 스틸 위원장(OC수퍼바이저), 영 김(연방하원 후보), 이정현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가 각각 축사를 한 후 조현영 목사(부회장)의 사회로 2부 기도모임을 가졌다.

기도모임은 △미국과 한국의 영적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이호우 목사, 이사장) △OC교회, 선교단체, 신학교를 위하여(박대근 목사, 글로벌장로교회) △이민가정과 차세대

를 위하여(김근수 목사, OC목사회 회장) △OC지역 기관단체장을 위한 축복기도(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담임) 등이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새생명선교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한 백 현목사부부

“작은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되라”

새생명선교교회 설립14주년 및 제2대 담임목사 취임예배

새생명선교교회설립 14주년 감사 및 제 2대 백현 목사 취임 예배가 23일 오후 4시 축하객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예배는 박봉수 목사의 찬양인도와 손명수 집사(남가주사랑교회)기도, 강신익 목사(‘아침향기’ 발행인) 성경봉독, 양수철 목사(KAPC 총회장) 설교로 진행됐다.

양수철 목사는 “작은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계3:7-13)란 제목으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며,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가 꿈꾸며 만들어가는 교회는 외형적 교회가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으며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라고 말씀을 전했다.

지윤성 목사(안디옥장로교회)는 “겸손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교호와 성도와 은퇴보사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뤄 주실 것”이라며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종이 되기를 권면했다.

남성수 목사(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확장되고 퍼져나가는 교회가 되고 양육 받은 다음 세대가 거룩한 리더로 자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으며 지역별 장로(토랜스조은교회)가 축사했다

이날 담임목사로 취임한 백현 목사는 “그동안 부교역자로 섬기며 귀한 목사님들로부터 많은 리더십과 섬김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목회현장에서 잘 실천하겠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답했다.

이 새생명선교교회를 설립하고 14년 동안 이끌어온 김만수 목사부부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며 그동안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진 후, 나철길 장로의 특송과 김성일 목사(로스앤젤레스교회 노회장)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새생명선교교회는 1년 전부터 백현 목사를 후임으로 선임하고 동역해오다 담임목사로 취임하게 됐으며 1대 목사인 김만수 목사는 전도목사로 함께 섬기게 된다.

새생명선교교회는 4652 N. Eagle Rock Blvd에 소재하며 자세한 것은 (213)447-5742로 문의하면 된다. www.newlifemissionchurch.us (이성자 기자)



엘피스 패밀리 가정사역원 하브루타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말씀운동이며 부모 회심운동’

엘피스패밀리가정사역원 하브루타 세미나

엘피스패밀리가정사역원(Elpis Family Ministry, 대표 박운송 목사)은 지난 2월 15일 한국 하브루타교육문화연구소장이자 하브루타문화협회 이사이고, D6 Korea커리큘럼 디렉터인 이성준 목사를 강사로 엘피스패밀리 임원들의 교육사역을 위한 하브루타 세미나를 열었다.

1부 “하나님께서 주신 원안, 하브루타로 다음세대를 깨워라”에서는 하브루타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배우고, 한국의 교육방식으로써의 하브루타와 유대인의 정체성과 신앙전수로서의 하브루타에 대해 깊이 배우고, 다음세대를 위해 부모가 가정에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성준 목사는 “하브루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운동이며 부모의 회심운동”이라고 정의하며, 하브루타는 신앙의 전수이며 이것은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이뤄져야 하고 이것이 위기에 있는 다음세대를 살리는 핵심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쉼마의 말씀(신6:4-9)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며 자녀를 부모의 첫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유대인의 하브루타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신앙전수’라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2부에서는 “질문의 공부, 하브루타 수업 적용” 주제로 실질적인 삶에서 하브루타를 적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우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하브루타를 수업과 세미나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서로 설명하기’ 수업 모형으로 듣고 짝에게 설명하기, 보고 짝에게 설명하기, 읽고 짝에게 설명하기 등 시청각으로 다양하게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다.

엘피스패밀리가정사역원은 2016년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부부 세미나, 갈등관리 세미나, 큐티 세미나, 자녀교육 연 등의 사역을 하고 있다.

엘피스패밀리는 오는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팔로스 베데스에 있는 Mary & Joseph Retreat Center에서 제3회 사모 힐링 캠프를 개최한다. 예약 및 문의는 박운송 목사 (213-700-9928)나 Kay 간사(213-268-8333), elpispfamily.org@gmail.com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엘피스패밀리가정사역원)

코로나19 사태 관련 긴급 간담회

LA총영사관, 한인여행사 대표들 초청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은 LA문화원, 한국관광공사 LA지사와 공동으로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지난 2월 20일 오전 총영사관 5층 회의실에서 당시 한인 여행업계를 초청, 긴급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LA문화원 및 한국관광공사 LA지사에서 코로나19 확산관련 국내외 시장 동향을 설명하고, 총영사관 이용욱 경찰영사는 코로나 관련 LA카운티 보건국,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등 현지 공공기관의 대응방안과 협업체

에 대해 소개하고, 명일(2월 21일) 개최되는 LA카운티 보건국의 코로나 관련 영사단 브리핑 내용 등 최신 동향에 대해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임을 안내했다.

삼호관광 신영임 부사장을 비롯한 여행사 대표들은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대부분 중국에서 송환돼 왔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최초 5명에서 1명이 회복돼 현재 4명만 별도 시설에 격리돼 있는 등 추가적인 전파나 감염 없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황으로 평가되며 동포사회에서 과민하게 반응하



한미연합회에서 열린 2020 센서스 인구조사구 임시직 취업 신청 최종 워크숍에서 한 신청자에게 한미연합회 관계자가 취업 신청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서부교계 게시판

월드미션대학교 EMDR 치료 워크숍

Buena Park, OC에 위치한 월드미션 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7342 Orangethorpe Ave. Suite A-103, Buena Park) 상담대학원 OC 캠퍼스는 상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상담자를 위한 EMDR 치료에 대한 워크숍과 훈련”을 제공한다. 이 워크숍은 분교 상담심리학과 송경화 교수 인도로 2월 29일(토) 오전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회비는 점심식사와 교재비를 포함 100달러. 월드미션대학교 재학생들에게는 50% 할인이 적용된다. 선착순 15명, 당일 신청은 받지 않는다. ▲문의: 213-388-1000

감사한인교회 이재철 목사 초청집회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는 이재철 목사 초청집회를 ‘말씀 그리고 사색과 결단’이라는 주제로 3월 6일(금)부터 8일(주일)까지 개최한다. 시간은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주일 1-3부 예배 ▲문의: (714)521-0991

오렌지중앙교회 말씀사경회

오렌지중앙교회(담임 유원선 목사 13522 Goldenwest St, Westminste) 말씀사경회가 ‘회복의 은혜’라는 주제로 2월 28일(금)부터 3월 1일(주일)까지 개최된다. 강사는 김신일 목사(유니온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28일(금) 오후 7시 30분, 29일(토) 오전 6시, 오후 6시 30분, 3월 1일(주일) 주일예배, 오후 1시. ▲문의: (714)891-2370

나성영락교회 47주년 기념예배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 설립 47주년 기념예배가 3월 1일(주일) 예배시간에 열린다. ▲문의: (323)227-1400

로고스교회 설립31주년 감사예배

로고스교회(담임 신동수 목사) 설립 31주년 감사예배가 3월 1일(주일) 예배시간에 열린다. ▲문의: (626)798-9100

사우스베이션교회 원로목사 및 담임목사 취임예배

사우스베이션교회는 조종근 원로목사, 김영수 원로장로 주대 및 양우광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3월 1일(주일) 오후 3시30분에 갖는다. ▲문의: (310)530-6885

효사랑선교회 주최 글짓기 그림 공모전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는 제 8회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이며 △나는 가정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부모님을 존경한다 △나는 코리안아메리칸이다 등 4개 소주제 가운데 하나 또는 여러 주제를 선택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면 된다. 글짓기는 한글 또는 영어로 레터 용지 3쪽, 12포인트이며 그림은 학년과 관계없이 14X17인치 도화지에 크레파사, 수채화, 소묘(드로잉), 아크릴화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출품작은 이메일(hyosarangus@gmail.com)로 보내면 된다. 참가비는 20달러. 형제(자매)가 참가하면 두 번씩 참가자가 10달러. 시상내역은 대상 2명 각 500달러, 최우수상 4명 각 300달러, 우수상 6명 각 200달러 상금이 수여된다. 접수기간은 3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상식은 4월 25일(토) 오전 10시 풀러턴장로교회에서 열린다. ▲문의: (714)670-8004

제3회 캘리포니아 머슴교회 세미나

제3회 캘리포니아 머슴교회 세미나가 풀러턴장로교회(담임 황인철 목사)에서 오는 3월 16일(월)부터 18일(수)까지 열린다. 강사는 송영선 목사(벨립보교회 원로)이며 등록비는 100달러(교재, 식사제공)다. 선착순 25명에 한해 접수 받으며 접수마감은 28일. ▲등록 및 문의: (714)932-3352 이흥록 목사

뉴송교회 춘천시립합창단 초청음악회

뉴송교회(담임 박인화 목사 4220 Fairway Dr. Carrollton, TX)는 춘천시립합창단 초청음악회를 3월 7일(토) 오후 6시 30분에 갖는다. ▲문의: (972)395-8422

시간당 25달러...훈련기간에도 급여지급

한미연합회, 2020센서스 임시직 취업신청 최종 워크숍

한미연합회는 센서스 인구조사국이 임시직 모집을 2월 말 종료함에 따라 최종 취업 신청 워크숍을 2월 21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개최했다.

오드리장 담당자는 “지난 1월 30일과 31일, 2월 7일, 13일 열렸던 워크숍은 50여명의 신청자들이 참여했다”며 “이번 워크숍에서는 임시직 업무를 찾고 있는 자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장 담당자는 “센서스 근무시간이 자유롭고 급여도 시간당 25달러 정도로 높게 책정됐을 뿐만 아니라 4월부터 시작되는 업무를 위한 훈련기간에도 급여가 나가게 된 것이 신청자들의 적극적 참여로 이어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날 워크숍에선 센서스 인구조사국에서 나온 감사가

2020 센서스 인구조사 참여방법과 이웃과 지인의 참여를 장려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의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 병원, 도로 등의 공공서비스에 연방정부 기금을 배분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쓰이게 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인구조사는 온라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한미연합회는 한인사회의 센서스 인구조사를 장려하는 데 도움을 줄 친선대사 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자를 희망하거나 취업신청에 대한 문의는 담당자 오드리장(audrey@kacla.org) 또는 한미연합회(213-365-5999)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지 않기를 요망했다.

또한, 업계 대표들은 최근 모 국방문이나 유럽, 동남아 여행 자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신천지 교회 예배 등 국내에서 갑자기 확진자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러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한국 방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을 같이 했다.



LA총영사관은 코로나19 사태 관련 한인 여행사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온라인 주일예배 관촬을까?...

예배학자 “신학적으로 문제 안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구·경북 지역 뿐 아니라 전국의 적잖은 교회들이 23일 주일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다.

우리나라 교회가 주일에 문을 닫은 건 처음 있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6·25전쟁 중에도 피난지에 교회를 세워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런 전통으로 교회 현장에서는 혼란도 있다. 교회 폐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걸 알면서도 ‘주일 성수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예배학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피치 못할 상황이라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무방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명실 영남신대 교수는 24

일 “예배학자로서 주일예배까지 온라인으로 대체하기로 한 여러 교회의 판단은 너무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신학적으로 문제 될 부분은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온라인 예배라고 주일 성수의 개념을 훼손하진 않는다”면서 “기도교 박해 시기에 이교도들이 모이는 바벨론 회당이나 지하동굴인 카타콤에서도 예배를 드렸다. 주일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몇 가지를 주의하려고 조언했다. 그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는 하나님의 계시와 교인들의 응답, 여기에 공동체성이 더해져야 한다”면서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이 부분을 보완할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 순서 전체를 녹화하거나 생중계하라고 주문했다. 설교만 공유하는 건 온전한 예배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설교자가 예배 전체를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이를 녹화해 교인들과 공유해야 한다”면서 “가능하면 구역 단위로 모여서 교회가 제공한 예배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성도 간 교제하면 좋다”고 권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 또한 여의치 않을 수 있다. 김 교수는 “무조건 소그룹으로 모여야 한다는 건 아니다”면서 “예배를 드린 뒤 문자로 교구 목사에게 예배드리고 받은 은혜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으로 성도의 교제를 대신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목회자들도 교인들과 온라인 심방을 통해 공동체의 건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천지, 말뿐인 활동 자제령...

몰래 예배당 진입 제지당해...온라인 포교 주의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지난 21일 신도들에게 공지한 글에서 ‘전도와 교육은 통신으로 하자’고 지시한 만큼, 이들의 온라인 포교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인단상담소협회장은 2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의 주원인으로 물리면서 잠시 주춤할 순 있지만, 신도들은 ‘포교 없인 구원도 없다’는 신념을 목숨처럼 받들기 때문에 포교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인의 관심사를 확인하고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보내 1대1 채팅 포교를 하는 게 신천지의 온라인 전략”이라며 “비대면으로 친분을 쌓은 뒤 코로나 사태가 찾아들면 ‘추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는 “신천지는 그동안 ‘S라인’ ‘희소식’ 같은 신도 전용 애플리케이션

을, 팟캐스트 방송 ‘하늘빛’ 유튜브 채널 등으로 내부를 관리하고 사고를 획일화해왔다”며 “주요 교육 시설이 노출됐기 때문에 당분간 온라인을 최대한 활용해 내부 결속을 다질 것”이라고 전했다. 탁 교수는 “우려스러운 것은 신천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신도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슬람국가(IS)가 ‘외로운 늑대(자생적 테러리스트)’의 테러를 유발한 것처럼 신천지 교리에 세뇌된 신도가 자발적으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교주 이만희와 신천지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이만희가 이번 사태를 ‘마귀의 짓’으로 규정한 것은 책임의 외주로 돌려 내부의 신도들을 통제하기 위한 술수”라며 “행정적으로 지도부를 압박해서라도 조직 및 개인적 포교까지 모든 활동을 멈추도록 해야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천지 신도들이 은밀하게 오프라인 교류를 이어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진 회장은

“아무리 위급해도 신천지 내부에서 포교 대상자에 대한 ‘친교 유지’ 지침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암암리에 진행되는 오프라인 만남,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대상자 포섭 등이 이뤄질 수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주일인 23일에는 전국의 정통 교회 곳곳에서 신천지 신도가 몰래 예배당에 진입하려다 제지당하는 일이 다수 발생했다. “모든 신도들에게 ‘외부활동을 자제하라’고 공지했다”는 신천지의 발표를 역면 그대로 믿기 힘든 상황이다.

서울 서초구의 한 교회에선 한 여성이 신원을 확인하려던 부목사에게 “구역 활동만 해서 담임목사 얼굴은 잘 몰랐다”고 얼버무리다 적발된 사례도 나왔다. “죄송하지만 나가 달라”는 요구에 안 나가겠다고 버티던 이 여성은 괴성을 지르며 예배당을 떠났다. 이 교회에는 이날 오전 예배에도 신천지로 추정돼 경계하고 있던 외부인 등 2명이 찾아왔다가 교회의 출입통제로 돌아갔다.

이 교회 담임 A목사는 “주변 목사들도 주일에 유사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서 “신천지 신도들이 지역 교회로 흩어지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자살 및 최근에는 성을 이용하여 포교 활동하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모든 언론도 공식 명칭을 ‘신천지 집단’으로 명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독교 내에서도 ‘신천지 교회’라는 명칭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 과천 A교회 목사는 “신천지로 인해 기독교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 가정을 해체하는 반사회적 사이버 단체에 ‘교회’라는 표현을 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계위에 회부하는 부당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 대표는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동성에 옹호조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트랜스젠더의 수술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황당한 정책을 국가인권정책으로 주장하기도 했다”며 “지난해 3월에는 남자 여자 외 제3의 성을 국가기관으로 처음 인정한 것도 모자라 지난달엔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의 복무 지속을 적극 권고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를 민간 동성애 옹호단체로 규정하며 ‘군인권센터,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의 잘못된 정보에 귀 기울이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인해 트랜스젠더가 증가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회 자체적으로 예배잠정중단 해 달라”

한교총 코로나19 관련 각 교회 지침 촉구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대구 지역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예배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결정할 수 있도록 교단이 나서서 관련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21일 오후 이런 내용의 성명

을 발표한 한교총은 “예배당 소독에 만전을 기하고 호흡기 질환자의 출입 제한과 개인위생에 빈틈없이 해 달라”면서 “교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하는 걸 최대한 막아달라”고 했다.

‘주일예배 외 모든 활동 자제 당부’

예장합동 총회장 담화문 발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김홍준 목사)이 21일 총회장 담화문을 발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교단적 가이드라인 10가지를 제시했다.

1. 공예배를 포함하여 교회 내에서는 모든 직원들과 교인들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 주십시오(교회 내 마스크 구비 요망).
2. 교인 중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예배참석을 삼가 해주시고, 자가 격리 함께 소속교회 당회(혹은 담임 목사)에 알려주십시오.
3. 주일예배 외에 호흡기 감염의 우려가 있는 모든 활동(점심식사, 친교, 회의, 성경공부, 주중모임 등)은 당회를 중심으로 당분간 자제하여 주십시오.
4. 예배공간과 집기들은 정기적으로 방역 및 소독하여 주십시오.
5. 신천지의 전통적인 포교방식과, 코로나19 방역 및 역학조사에 대한 비협조적인 행태와, 신천지교회 폐쇄방침에 따라 일반교회로의 침투가 우려됩니다. 신천지 출입을 금하는 전단을 부착하고, 등록교인 외 교회 출입자에 대하여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대구, 제주, 전북, 서울 등 지역 확산이 관찰되고 있으므로, 당분간은 상비부 및 특별위원회의나 행사 등을 연기 혹은 대체하여 주십시오.
7.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 방역용품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을 발표한 한교총은 “예배당 소독에 만전을 기하고 호흡기 질환자의 출입 제한과 개인위생에 빈틈없이 해 달라”면서 “교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하는 걸 최대한 막아달라”고 했다.

또한 “전염병 확산으로 두려움과 공포가 만연하는데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고 교회별로 기도 제목을 공유하며 개인 기도를 해 달라”면서 “개인 신앙의 성숙과 갱신의 기회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어 확진자들, 의료진과 방역 당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권했다.

는 돌봄을 지속하여 주십시오.

8. 코로나19 사태의 해결을 위해, 고통 받는 이웃나라 중국을 위해,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 침체된 경제의 회복과 나라의 안정을 위해, 한국교회의 갱신과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9. 코로나 공포감이 확산됨에 따라 생필품, 방역용품 사재기 등 중국과 같은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앞장 서 주십시오.

10.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전파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말과 행동에 더욱 유의하여 주십시오.

담화문에서 김홍준 총회장은 “그리스도의 모범과 사랑으로 어려운 시국을 성숙하고 지혜롭게 극복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침투·혁신성은 젊은이 무기...”

교단·교회·선교단체 ‘차세대 맞춤형 선교운동’ 펼쳐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KWMA)가 지난달 14일 정기총회에서 발표한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2019년)에 따르면 선교사의 58%가 50대 이상이였다. 특히 60대 이상은 4,446명으로 2018년 2,709명보다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반면 30대 이하 선교사는 11%에 불과해 선교사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보다 선교사 희망자가 줄고 있는 데다, 선교사로 지원한다 해도 40대 이상이 많기 때문이다.

황성주 사랑의봉사단 회장은 19일 “이제 젊은이들의 손에 헌신의 깃발을 들려줘야 한다”며 “침투성과 혁신성은 젊은이들의 강력한 무기다. 강력한 비전과 가슴 설레는 꿈을 심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은 자신보다 더 큰 비전에 붙잡힐 때만 안정감을 느낀다”며 “국내 청소년과 청년대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세계 경영’ 세계선교의 완성이라는 꿈을 심어주는 시도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단과 선교단체 등에서 차세대 맞춤형 다양한 선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세계선교회(KPM)에서는 ‘232청년선교자위원운동(232운동)’을 펼치고 있다. 232운동은 침체에 빠진 한국 선교에 대한 고민과 기도 가운데 시작된 선교 동원 운동이다.

고령화로 인해 사임 또는 은퇴하는 선교사들의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20~30대 선교사

신입 지원율은 하락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KPM 자체 조사 결과를 봐도 2018년 기준, KPM 파송 선교사들의 평균 연령은 54세로 2034년이 되면 선교사들의 절반 가까이가 은퇴하게 된다.

‘232’는 열왕기상 20장에서 아람 군대를 격파하는 선두에 섰던 각 지방 고관의 이스라엘 청년 232명을 의미한다. 이들처럼 영적 압축기를 풀고 나갈 차세대 선교사를 준비하자는 마음을 담았다. 현재까지 232운동 지원자는 총 125명이다. 교단 내 선교사 자녀, 고신대 등 대학 청년, 학생신앙운동(SFC) 회원, 각 교회 청년들, 교회학교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를 통해 1년 미만 인턴선교사 지원자 등 장기 선교사를 위한 후보들이 등장했다.

KPM은 지원자들을 해외 선교사들과 연결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7주 과정의 선교비전학교를 통해 선교사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선교비전학교를 수료하면 비전트립(단기선교)이나 인턴선교사(1년 미만)로 선교 현장을 경험할 수 있다. 1년에 한 차례 겨울 캠프를 열어 청년들이 선교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KPM은 232운동 확장과 발전 방향 차원에서 고려신학대학원 선교전공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련선교사 파송도 시범운영 중이다.

(새청년선교(이사장 여주봉 목사)는 5개의 축이 톨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다음세

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양육한다. 지역과 군대, 캠퍼스(학교), 직장, 해외다. 이 축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청년 사역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게 목표다. 2018년 설립과 함께 바라본 곳은 군대다. 많은 청년이 군대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지만, 제대 후가 문제였다. 학교나 사회로 돌아가면 신앙을 이어나가지 못한다는 현실을 목격했다. 전국 113개 학군단의 신뢰 후회 간사, 600명의 군선교 교역자로 후원했다.

이후 범위를 확장했다. 군선교연합회와 연합해 전국 403개 대학에 230여명의 캠퍼스 사역 간사를 세웠다. 군에서 세례와 침례를 받고 캠퍼스로 돌아오는 학생들의 신앙이 단절되지 않도록 섬기고 그들을 지역교회로 연결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해 직장으로 진출하면 직장선교단체와 연합해 그들을 직장선교로 연결하고 있다.

핵심은 청년들의 해외 선교다. 2명씩 한 조로 꾸려 1년간 인턴 선교사로 파송한다. 6개월 간격으로 파송하기 때문에 실제로 4명이 한 팀을 이룬다. ‘2+2’ 인턴선교사 현장trip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250개국에 파송하고 있다.

이 같은 모델은 선교단체와 교회들에 본보기가 되고 있다. KWMA와 협력해 전국 교회로 확대 중이다. 목표는 매년 1000명의 청년을 열방으로 보내는 것이다. 여주봉(포도나무교회) 목사는 “다음세대를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한 거대한 톨니바퀴가 돌아가고 있다”면서 기도와 협력을 요청했다.

신천지 교회 아니다... ‘신천지 집단’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상당수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계자이거나 사이비적인 집단이며 사이버적인 집단인지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 집단은 기존의 정통성 있는 교회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왔으며 수많은 교회의 교인들을 도적질해왔다”며

아니다. 자칭 교회라 하며 예수의 이름을 선전용으로 악용하고 있으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신천지가 얼마나 폐쇄적인 집단이며 사이버적인 집단인지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 집단은 기존의 정통성 있는 교회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왔으며 수많은 교회의 교인들을 도적질해왔다”며

“나쁜 인권 규탄한다”

한교연 동성애&인권공동대책위 성명 발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동성애&인권공동대책위원회가 21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나쁜 인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길원평(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교수 김영길 바른국민권연구소 대표 고형석(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함례노회 동성애대책위원장) 박사 등이 발제에 나섰다.

길 교수는 이날 ‘이상원 총신대 교수에 대한 관선 재단이사회 부당한 결정’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총신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심의에서 이 교수의 강의를 ‘성경과 보건·의료적 사실에 근거한 문제 지적’으로 보고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으며 교원인사위원회도 이 사건을 재단이사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관선 재단이사회는 같은 달 26일 ‘사회적 관심 심이 집중돼 있는 민감한 사항’이란 예매한 근거를 대며 대책위와 교원인사위가 속의내 내린 결정을 무시한 채 이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길 교수는 “징계위 회부 결정은 조사에서 혐의가 사실상 입증돼 징계에 해당될 때 취해지는 조치”라며 “징계위의 여부 가 확인되지도 않은 사안을 징계위에 회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관선으로 들어온 재단 이사들은 총신대의 건학이념에 반해 이 교수를 징

사를 개최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한동대는 “법원이 한동대의 징계에 하자가 없다는 걸 확인해준 판결”이라며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육성은 선교 자유의 하나로 보장되는 것이고, 학교법인은 종교교육을 할 자유를 가진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립대학의 건학이념과 종교교육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한동대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동대, 다자성에 강연주최 학생 징계는 정당”

법원 “건학이념에 어긋나 징계사유 비례무기정학 처분은 과중”

경북 포항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홍)는 다자성에 강연을 주최한 학생 징계와 관련, “기독교 대학의 건학이념을 지키기 위한 학생 징계의 당위성을 인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한동대의 한 동아리는 2017년 12월 교내에서 다자성에(폴리 테이머)와 동성애, 매춘, 낙태 등을 두둔하는 강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했다. 한동대는 강연회를 주최한 학생 A씨에게 불허했는 데도 강행했고 강

연 내용이 건학이념에 어긋나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법원에 ‘무기정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2부(판사 임영철)는 지난달 30일 “총립(기독교)대학에서 건학이념과 종교교육을 위해 허가받지 않은 행위를 징계 사유로 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다만 징계 사유에 비해 무기정학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결했다. 징계가 무겁긴 하지만, 학교의 허가 없이 건학이념에 어긋나는 행



“우울증과 영적 치유” (12)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육, TPPM대표

3.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캐시디 왓킨스

나는 16년간 우울증을 앓아 왔고 아침마다 폭풍이 몰아친 것 같은 어지러운 기분으로 일 어났고, 극심한 고뇌와 고통으로 혼란함에 빠지고 암울함을 느꼈다. 사탄은 항상 내 옆에 있었다. 마귀에 의해 고통을 겪으면서 내 눈이 가리워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했다. 우울증은 내가 9세에서 10 세쯤 되었을 때에 시작되었다. 나는 양아버지에 의해서 육체 적, 정신적 학대를 받았고, 어머니의 전 남자친구에게는 성 폭행을 당했다. 양아버지는 나를 학대했고 나의 영혼을 심각 하게 파괴했고, 나의 어머니가 그를 떠나지 않고 현재까지 그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아픔은 더욱 깊어졌다. 어머니 는 내가 그럴 만한 짓을 했다며 그 학대를 정당화시키기까지 했다. 심지어 양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강제로 말하도록

했으며, 그를 아빠라 부르라고 시켰다.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반항 적이 되어서, 양아버지를 아버지 가 아닌 그의 이름으로 불렀고,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그만 두었다. 그런 이유들로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나를 학대하고 있다. 나는 학대와 함께 어머니와 친아버지 가 나를 방치했다는 감정 적 상처와 극심한 우울증, 공황발작증세 등으로 인한 '외상 후스트레스장애(PTSD)'로 고통을 받았다. 처방약으로 치료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의약품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늘 자살하고 싶은 마음에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죽어 지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는데,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 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내가 수감되었을 때,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였다. 그때부터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항우울제 복용을 그만두었다. 몇 주 후 나의 마음의 고통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것은 내가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의 치유하심이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약물이 아닌 하나님이었다. 기도생활을 시작하면서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 우울증에서 치유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 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 주신다. 나는 환상 속에서 가장 행복한 곳(천국)의 세계를 살짝 맛보게 되었다. 내가 사악한 인식을 바꾸지 않았다면 천국에 대한 나의 비전을 결코 갖지 못했을 것이다. 함께 하지는 않을지라도 나는 언제나 부모님을 공경하리라 다짐했었다. 또한 나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상해를 입히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 그 다음으로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단지 일시적이라는 것을 믿으며 알고 있다. 어느 날 저녁, 묵상하던 중 갑자기 나의 몸은 예전에 느낄 수 없었던 완전 평안함의 상태

가 되었다. 눈앞에 작은 강이 보였는데 그 강의 모래는 수백 만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빛났다. 모든 종류의 곡식들이 형형색색으로 빛났다. 물은 매우 아름다웠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처럼 반짝거렸고 평화로운 물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꿈에서조차 그런 부드러움을 느껴본 적이 전에 없었다. 너무나 행복해서 기쁨의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꽃들이 하늘로부터 아름답게 내리는 것을 보았다. 연꽃들이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 왔고, 강물은 매우 느리면서도 평화롭게 물결쳤다. 그곳에서 황금빛 길을 볼 수 있었다. 그 길 주위는 형형색색의 빛을 내는 네온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 길은 내가 본 적이 없는 가장 깨끗한 유리로 만든 것 같았고 그 아래로 아름다운 지면을 볼 수 있었다. 파스하면서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었다. 너무나 기쁨에 차서 세상의 어느 누구도, 어느 것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마치 안개처럼 내 자신의 몸을 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빛에 싸여 있었다. 그 세계의 빛은 눈부시게 하지 않으면서도 안정감을 주었다. 그것은 마치 구름, 안개, 목화나무에서 나온 숨들이 공기 중에 자유롭게 떠다니는 듯 한 느낌이 었다. 그 세계는 시각과 같은 감각을 뛰어 넘는 희열을 주었

다. 강 근처에 큰 녹색의 잎을 가진 거의 하트 모양의 밝은 나무가 있었다. 현실로 돌아왔을 때 나는 침대에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앉아 있었다. 내가 금방 다녀온 곳이 어디였다는 사실을 지금도 믿을 수가 없었지만, 그곳은 실재했다! 내 손은 계속 떨렸고 나는 극도의 행복과 놀라움에 빠졌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나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이 체험을 하기 전 나는 매일 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 달라고 기도 드렸었다.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나의 마음을 열어 주셨다. 나는 매일 밤 기도하며, 내가 본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희망하며 묵상한다. 천국을 본 후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 사실 다음 영생을 위해서 현재의 죽음을 반길 지경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내 삶을 생각해본다. 어쩔 내가 그 리도 어리석었을까!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옛것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야 새로운 것들이 찾아온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산다. 그것을 알게 된 것은 큰 축복이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크나큰 사랑과 자비를 보여 주셨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다. 그저 자신을 비움으로써 자신에게서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마귀에게 구속당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우리가 한 모든 선한 것은 보상을 받을 것을 기억하라! 천국은 실재한다! 고통 없이 행복은 없다. 흠이 없이는 꽃이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고, 전쟁 없이 평화의 가치를 모르는 이치다. 원인 없이 결과가 없다는 것을 믿으며,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네가 그들에게 상처주면 그 상처가 결국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라는 성경의 말씀은 사실이다. 용서와 사랑이 행복의 필수조건이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받은 것을 잊지 말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라. 당신이 자신의 행한 선 일을 기억하며 감사드릴 때 주님도 당신으로 인해 기뻐하신다. 주님께 모든 것에 감사 드림이 삶의 핵심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 당신을 주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도록 할 것이다. 주님은 당신이 드리는 감사의 조건에 충족시켜 주신다. 주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라. 응답이 없을 때는 당신에게 필요하지 않거나 옳지 않은 일, 혹은 아직 때가 아닌 것임을 알고,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알고 계시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yonghui.mcdonald@gmail.com



드라마 서신서 (1)



김덕수 목사
(생태지역인 LA지부장/하늘소망교회 담임)

데살로니가전서 내용

편지의 발신자가 바울과 실루아노(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왜 이 세 사람이 공동발신자가 되는지를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참 흐뭇합니다. 세 안식일의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행17:2), 저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교회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살전1:3). 그들의 소문은 이미 마게도나와 아가야까지 퍼졌습니다(살전1:7-8). 그런 흐뭇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가기 직전에 개척한 빌립보교회를 개척하던 때도 회고하고(살전2:2), 데살로니가에서 자비량으로 사역했던 것도 회고합니다(살전2:9-10).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심 즉, 우리를 신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텐데(살전3:13),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거룩하여 음란과 색욕을 버리고(살전4:3-5), ‘너는 나다’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살전4:9)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저희들을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살전4:14). 그 날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살전4:16),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살전4:17).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소망을 두고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살전4:18). 그렇게 살다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날은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살전5:1-10). 깨

사람들이 재림의 이야기를 오해하여 시한부 종말론에 빠집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하면) 일하지도 않고, 학교도 안가고, 게으르고 무절제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종말론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데살로니가후서입니다. 그렇기에 데살로니가후서는 종말론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내용

데살로니가후서 역시 발신자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입니다(살후1:1). 일단은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박해와 환난을 잘 견디고 있음이 바울의 자랑거리였습니다(살후1:4).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박해와 고난을 잘 견디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살후1:5). 그리고 본격적인 종말과 재림을 이야기합니다(살후1:7-12). 재림의 때에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살후2:2-3a). 재림의 날이 임박할 때는 배교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앞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살후2:3b-4). 그러나 재림의 날에 예수님께서 그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살후2:8). 적그리스도에게 미혹 받아 거짓 것을 믿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전통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살후2:9-15). 그 전통을 굳게 지키는 모습은 게으르지 말고(살후3:6), 주어진 한 날에 최선을 다하여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라(살후3:11-12)고 권면하신 후 축복의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살후3:16-18). 데살로니가후서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하여 말씀하신 감람산강론(마 24-25장)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dsukim@gmail.com

오늘부터 우리는 신약에 있는 서신서(바울서신과 공동서신) 각 권을 마치 ‘그림을 스케치하듯’ 나눠 볼 것입니다. 특히 바울서신서들은 사도행전의 상황과 맞물려 쓰여졌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읽으면 그 내용이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신서들을 살펴볼 때, 성경에 배치된 순서대로가 아니라 쓰여진 시간 순서대로 서신서를 재배치하여 사도행전의 상황과 그 서신서의 내용을 살펴보고요 합니다. 그렇게 재배치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욕중서신(골, 몬, 베티, 빌), 목회서신(딤후, 딤후)의 순서가 됩니다.

오늘은 바울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배경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로서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당시 고린도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사도바울의 2차 선교여행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빌립보교회, 데살로니가교회, 고린도교회를 개척합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사도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돈을 주고 폭력 배를 동원하여 바울 일행을 핍박했

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하여 바울은 베뢰아와 아텐을 거쳐서 고린도로 이동하게 되었고, 바울과 동행했던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나 지역(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를 포함하는 큰 지역)에 주둔하여 데살로니가교회의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였 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동역하면서 고린도교회를 개척하는 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복귀하여 데살로니가교

회의 상황을 보고합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을 때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에 바울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데살로니가전서를 쓰면서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내용은 두 가지 “칭찬과 위로”입니다. 유대인들의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이야기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핵심내용은 “칭찬과 위로”입니다.

바울서신 중 가장 먼저 쓰인 데살로니가전후서

전서 핵심내용은 “칭찬과 위로”, 그리스도 재림으로 이어져 후서 핵심내용은 “종말론”, 예수님의 감람산 강론과 일치

으로 받은 것과(살전2:13) 복음 때문에 고난 받고 있음(살전2:14)도 칭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합니다(살전2:19). 데살로니가교회에서의 사역을 회상하다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고 싶습니다(살전3:6). 바울은 보고 싶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재림의 그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살전3:13). 바울은 이제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합니다. 그 위로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은 그리스도의 나타나

어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며, 사랑 안에서 화목하여 누구에게든지 선하게 대하여야 합니다(살전5:11-5). 특별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살전5:16-18)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의 배경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낸 후 약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위로를 주었는데, 행을 위해 더 많은 교회들이 “ash and dash”이라고 알려진, 이전의 전통과는 다른 ‘drive-through(차에 탄 채로 이용되는)접근법’을 제공하기도 한다. 만약 사람들이 재의 수요일에 교회를 가지 못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때, 차 안에서 안락하게 재를-그들이 원한다면, 기도도-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시카고에 있는 일부 목회자들은 기차역과 대학교, 심지어 마트에서 재를 나눠주기도 했다. 드웨이 그랜트(Dwayne Grant)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를 받는 것은 단지 몇 초 밖에 걸리지 않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의 하루가 크게 변하게 되는 일입니다.”

개인적 절제부터 창조 질서준수와 보전까지

(1면에서 계속)
'America Magazine'의 편집자인 제임스 마틴(James Martin) 목사도, 사순절은 한 개인이 혼자 회생을 치르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다. “만약 당신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

다면, 그저 친절하게 대하세요. 당신이 무언가를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큼 긍정적인 무언가를 하는 일도 중요 합니다.”

또 다른 사순절 동향들

프란치스코 교황(Pope Francis)은 2019년 사순절 기간 동안, 혀로 “비판하고 파괴하도록” 하는 유희와 가심을 끊기를 격려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사순절이 끝날 때 좀 이것을 조금이라도 고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일이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라 확신합니다”라고 말했다. 재의 수요일에 재를 받는 전통적 수

캐플린 임상목회 (36)



박동서 목사 (Texas Health Presbyterian 병원 캐플린)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주의 사항

중국 허베이 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CVD19의 확산 국가가 아프리카와 남미, 동유럽 국가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과 국가로 전파되면서 전세계는 그야말로 우한 바이러스 공포증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이나 가까운 홍콩, 싱가포르, 일본과 한국 등의 중국 관광객이나 화교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시아 국가들만의 지역적이고 일시적인 질병 정도에서 종식될 것으로 여겨지던 예상이 빗나가서 이제는 중동의 이란과 이라크, 독일과 영국까지 북미지역도 미국과 캐나다까지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는 긴박한 실정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일차적으로는 인간 대 인간의 접촉에 의해 전염되고 14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급격히 악화되는 관계로 치료시기를 놓치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특히 면역력이 낮은 노년층에 치명적인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손쉬운 예방법은 1. 외출시나 사람들을 대할 때 반드시 마스크(N95, 바이러스의 침투를 차단해주며 아래 얼굴 전체를 빈틈없이 커버해주는 필터마스크)를 착용할 것과 2.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이 만질 수 있는 계단이나 문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쇼핑카트, 컴퓨터 키보드와 마우스 등을 손대거나 만지면 즉시 알코올 손세정액으로 먼저 닦고 물과 비누로 손을 자주 닦을 것과 3. 흡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게 될 때는 반드시 팔을 구부려 입에 대고 분비물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유의할 것 4. 귀가하면 대중교통이나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서 입거나 사용했던 의복 등을 헤어 드라이어기의 열기로 가열해서 바이러스를 소독할 것 5.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을 취하되, 생강차 같은 체온 상승효과와 항염 효과가 높은 천연 음료나 건강식품을 섭취하고 6.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할 것 등의 주의 사항들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창궐하는 관계로 우리 한국 동포들도 미국에서 예상치 못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대비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가벼운 기침이나 알러지성 재채기라도 공공장소에서는 유의하시고 미리 물병이나 목캔디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오히려 피할 방법입니다. 감기나 독감 증세가 있으면 즉시 주치의의 방문해서 진찰을 받으시고 하루나 이틀이라도 병가를 내시고 가정에서 휴식하시며 회복된 후에 출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사소한 질환도 지나치거나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적기에 받아서 질병을 키우지 않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또한 지나치게 전염의 염려나 걱정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시지 않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tdspark@gmail.com

'유관순과 8호감방' 앵콜 상영

기드온동족선교회, 순국 100주년 세계유네스코 등재 알려

기드온동족선교회(대표 박상원 목사)가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유관순문화유산업전문화회와 공동 제작한 '1919유관순과 그녀들의 조국'(총감독 윤학렬, 나레이션 하희라)이 올해 유관순 순국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과 8호감방'(62분)이라는 타이틀로 앵콜 상영한다. 기드온동족선교회는 석방을 불과 2일 앞두고 1920년 9월 28일 사대문형무소에서 옥사한 100년을 기념한 것과 세계유네스코에서 유관순을 한국의 역사인물로 등재하는 일을 알리고자 3.1절 전후로 2020년 9월 30일까지 상영하기로 했다. 상영을 원하는 교회들과 단체, 기관 등은 자체 장소에서 관람하기를 원하면 소정의 사례를 하고 볼 수 있다. 영화파일은 이메일과 USB 등으로 전달받을 수 있다. 특별히, 이 영화는 올해 북한인권영화를 제작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영어권 2세대와 청년들에게 영어자막이 제공된다. 문의: (425)775-7477 기드온동족선교회(이메일: gbmwusa@gideonbrothers.org)



'유관순과 8호감방' 포스터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혀 통증

혃바닥이 얼얼하고 화끈 거릴 때

얼굴에 분포된 뇌신경 중 어느 신경이 손상되었는가에 따라서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눈 주위 통증 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혃바닥 통증은 뇌신경의 이상보다는 다른 원인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 60대 초반의 가정주부인 엄 모씨는 6개월 전

부터 혃바닥에 심한 통증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혃바닥이 얼얼한 느낌이었는데 점점 심해졌다. 집 주위 병원에 가보고 이비인후과에도 갔는데 위산이 역류해서 그렇다는 말을 듣고 위산을 억제하는 약도 먹어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도 없었다. 시간이 지나도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

다. 주로 혃바닥 전체가 따끔거렸고 얼얼한 느낌이 들기도 했으며 때로는 화끈거리거나 칼로 자르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또 입이 항상 건조한 느낌이 있었고 미각에도 변화가 와서 입맛을 잃었다. 입안에 음식물이 있을 때는 혃바닥이 얼얼한 증상이 적었다. 통증은 아침에는 조금 견딜 만 하지만 오후 되면 심해졌다. 검진상 엄 씨의 혈압이나 맥박은 정상이었다. 의학적 검사상 혃바닥이 조금 부어있는 것 외에는 게양이나 염증 소견은 없었고 나머지 검사도 정상이었다. 위내시경 검사에서도 위산역류 소견은 없었다. 기본 혈액검사도 모두 정상이었다. 엄 씨의 혃 통증은 심리적 스트레스에서 온 것으로 판단하고 치료를 시작했다. 혃 통증(glossodynia)은 혃의 기능이나 구조적 이상 없이 여러 가지 혃바닥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혃 통증을 구강작열감증후군 이라고도 하는데 통증은 혃바닥에만 국한 될 수도 있지만

때로 입 전체나 목 주위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혃 통증의 유병률은 0.7-15% 정도이며 많은 환자들이 불안, 우울,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폐경기 여성에서 흔하지만 여성호르몬 부족과는 관계가 없다. 혃 통증이 있으면 먼저 국소적으로 구강 내에 게양이나 감염이 있는지, 틀니가 잇몸을 자극하고 있는지, 알레르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위산 역류 증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산 억제제를 복용한다. 또 체내 비타민 B12나 미네랄 결핍이 있는지, 당뇨가 있는지를 검사하고 특별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으면 소 용량의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사용한다. 대부분의 혃 통증은 만성질환이므로 환자에게 맞는 약물을 발견해서 장기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환자도 혃 통증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는 게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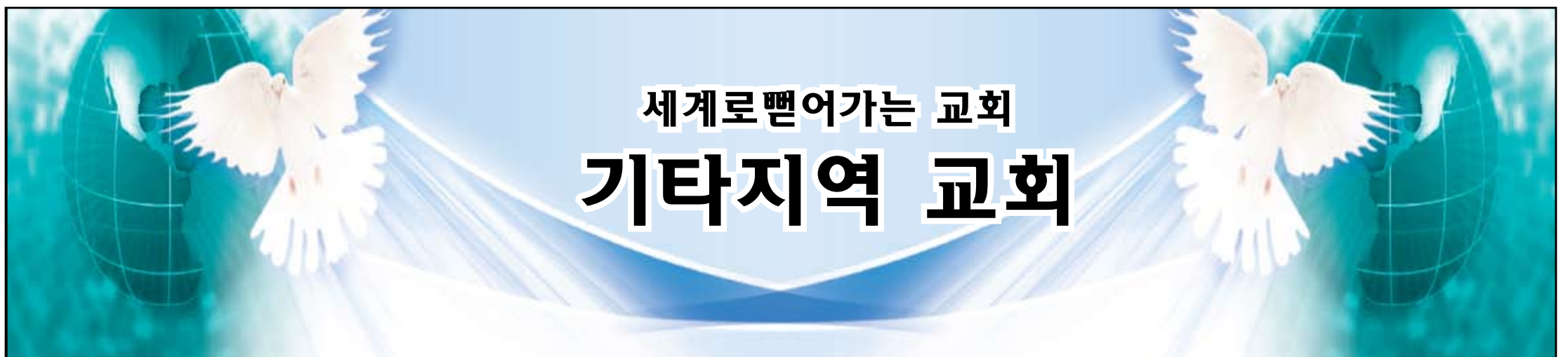
코로나: 검열 때문에 ...

(3면에서 계속) 그런데 리원량은 나중에 '유언비어 생산자'로 간주돼 경찰에 의해 '재교육'을 받으려 끌려갔다. 2월 7일, 그가

nCoV 감염증으로 사망하자 여론이 크게 술렁였다. 수많은 중국인들이 그 알량한 사회 안정 유지를 위해 전염병의 실상을 감춘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리원량 사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유언비어 생산' 혐의로 지속해서 체포되는 것을 보면 중국정부는 리원량 사건으로부터 그 무엇도 배울 생각이 없음을 분명하다. 2월 6일에도 중국 남서부 윈난(雲南)성 원산왕족마

오족자치주(文山壯族苗族自治州)에 위치한 병원 두 곳의 의료진 다섯 명이 '몰래 병원 내 환자들의 영상을 찍고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미승인 정보를 퍼뜨린' 죄로 열흘 동안 구금됐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including: 갈보리장로교회, 몽고메리교회,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벨델교회, 보스턴장로교회, 샬롯장로교회, 시애틀평강장로교회, 안디옥교회, 알칸사 제자들교회, 앵커리지열린교회, 엘파소열린교회, 영생장로교회, 킬린노스리교회,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주 예수교회,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and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영어로 보는 성경 (55)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2 Thessalonians 1:3-5

3) We ought always to thank God for you, brothers and sisters, and rightly so, because your faith is growing more and more, and the love all of you have for one another is increasing.

4) Therefore, among God's churches we boast about your perseverance and faith in all the persecutions and trials you are enduring.

5) All this is evidence that God's judgment is right, and as a result you will be counted worthy of the kingdom of God, for which you are suffering.

(NIV 2011)

WORD & IDIOM

* ought to + 동사원형 ~: ~를 해야만 한다, ~함이 마땅하다 * and rightly so: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 perseverance: 인내 * persecutions: 박해, 핍박 * trials: 시련, 환난 * endure: 참다, 견디다 * worthy of ~: ~에 합당한 * suffer: 시달리다, 고통을 받다

GRAMMAR

3) We ought always to thank God for you, brothers and sisters, and rightly so.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하다 너희를 위하여 형제자매들이여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 형제자매들이여, 우리는 언제나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because your faith is growing more and more, 왜냐하면 ~ 때문이다. 너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고 있다.

and the love all of you have for one another is increasing. 그리고 너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서로를 위한 증가하고 있다. ⇒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점점 더 자라며, 서로를 위한 너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증가하고(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 <ought to+V ~>는 의무, 당연, 적당, 필요 등의 의미가 있으니 문맥에 맞도록 의미를 살려 자연스럽게 해석한다. * <(the love () all of you ~)>에서 ()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다.

4) Therefore, among God's churches we boast about your perseverance.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자랑한다 너희의 인내에 대하여

and (about your) faith in all the persecutions 그리고 모든 박해 속에서의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and (about your) trials you are enduring. 그리고 너희가 견디고 있는 시련에 대하여 ⇒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너희의 인내와 모든 박해 속에서의 (너희의) 믿음과 너희가 견디고 있는 (너희의) 시련에 대하여 자랑한다.

* <(trials () you are enduring)>는 ()안에 들어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다. * <(all the persecutions)>는 원래는 <(all of the persecutions)>이지만 <(of)>의 생략이 가능하다.

5) All this is evidence that God's judgment is right, 이 모든 것이 증거이다 that ~이(가) evidence를 설명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옳은 것이다.

and as a result 그리고 그 결과로

you will be counted worthy of the kingdom of God, 너희는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for which you are suffering.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는 고통당하고 있다 ⇒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옳은 것이라는 증거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나라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 5절의 <(that)>은 동격절을 이끄는 접속사이며 <(that)>이하의 내용이 <(evidence)>를 설명해 준다. * <(for which)>에서 전치사 <(for)>의 목적어로 쓰인 관계대명사 <(which)>는 <(the kingdom of God)>을 가리킨다.

STUDY & THOUGH

■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박해나 환난이 신앙성장을 가로막지 못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여러 약조건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이 더욱 풍부해졌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핍박과 시련은 어김없이 찾아온다. 주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모든 고난을 극복하자!

■ Let's overcome all the difficulties with faith and love hoping for the Lord's day!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왕하1:1-6)

왕하1장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왕의 악행과 그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드러눕게 됐지만 회개는커녕 점쟁이를 찾아가 더욱 더 하나님을 격노케 했습니다. 바로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한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엘리야는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전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 생명의 위험도 무릅쓰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될 때 사람이 변화되고 영혼이 소성되고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화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왕하1:7-8)

사람을 살리는 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8절에서 엘리야는 가죽털옷을 입었습니다(털이 많은 사람). 가죽털옷은 "사명자의 표시와 권위"를 상징하며 그 뜻은 "나는 여호와께서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명자의 자제를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았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되심을 증거하며 삽니다. 또한 허

리에 가죽 띠를 띠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면이나 천으로 허리띠를 띠고 제사장들은 금실과 청색으로 된 실을 꼬아서 세마포 띠를 띠었습니다. 그런데 "가죽 띠로 띠었다"는 뜻은 가난하고 검소함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속에 살지만 사는 것은 늘 겸손하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왕하1:9-12)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증거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아하시야왕은 화가 나서 오십부장과 오십인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오십부장의 태도는 히브리원문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는 죽었다. 이제 꼼짝 말고 내려와"라는 비아냥대는 말투입니다. 엘리야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희들을 사를 것이라 고 말하자 곧 그 자리에서 불이 내려서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와 함께 말씀 전하는 자를 배나 존경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적권위를 갖고 말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야겠습니다.

목 오십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왕하1:13-14)

2명의 오십부장과 100명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다 타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야왕은 또 오십부장과 오십명의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셋째 오십부장은 엘리야 앞에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나와 50명의 생명을 귀히 보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최대한 공손한 태

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왕의 명령을 따라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라고 겸손하게 무릎 꿇은 것입니다. 이 오십부장은 다른 부하 오십명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방 나라 장군인 고넬료와 같이 베드로를 맞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금 왕이 엘리야의 전한 여호와의 말씀...(1:15-17)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 보호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세 번째 오십부장이 엘리야에게 온 가운데 나타난 것은 2가지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를 끝까지 보호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권위를 세워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하시야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있는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야 왕이 다락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의사에게 정성으로 치료받으면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입을 통해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죽으리라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리라." 말씀과 동일하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토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왕하2:1-6)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엘리야는 사명을 다 마친 후 승천했습니다. 인간 지식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이 승천은 이미 예녹에게서(창 5:24), 우리구주 예수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몸을 입고 승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엘리야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명인 후계자를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할 때 임을 알고 마지막 여행을 떠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거둬 따라오는 것을 포기하라고 하지만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엘리야를 따라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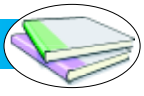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책 소개



‘문화를 알면 소통이 열린다’

저자 최동진 목사



많았던 최동진 목사는 인디애나 주에 있는 그레이스신학대학교에서 문화교류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과정으로 문화와 소통 분야에 집중했던 이유도 급속도로 다가오는 다문화적 상황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기 위함이었

니케이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 특징’,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문화적 상황’, ‘비언어적 유형의 보편성과 특이성의 문제’, 제 4장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유형들-‘키네시스’, ‘프락세믹스’, ‘크리네틱스’, ‘유사언어 및 기타 비언어적 유형들’, 제 5장 결론 및 제안을 수록했다.

또한 부록으로 △교차문화사역을 이해하기 위한 가치 모델 자가 점검표 △교차문화 수용 능력 개발방법 4단계 △교차문화 적응력 자가진단표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의 관찰 △

선교현장에서 ‘커뮤니케이션 부족’으로 오는 오해와 갈등이 이 책을 통해 조금이라도 해소돼 복음의 통로를 열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강희 선교사는 “최동진 목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타문화권과 교차문화적 환경에서 사역하고 있는 자들의 교과서”라고 말했다고 김학유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선교학)는 “동일 문화권뿐만 아니라 타문화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라고 말했다.

최동진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웨스트민스터신학교(PA), 트리니티신학교(시카고, Ph.D과정), 커버넌트신학교(세인트 루이스, D. Min과정), 인디애나 그레이스신학교에서 문화교류학 박사(D.ICS)를 취득했다.

책 구입 문의는 (858)945-5491, johndjc@yahoo.com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세계기독교언론협회(회장 조병환 목사) 주관으로 지난 17일 오전 11시 LA한인타운 한 식당에서 ‘문화를 알면 소통이 열린다’(쿰란출판사)의 저자 최동진 목사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최 목사(샌디에고 반석교회 담임)는 “우리 이민 목회가 이미 교차문화 사역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이 이민목회자들은 물론 이미 타인종을 대상으로 목회하고 계시는 분들, 또 다인종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평신도들에게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며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하면 언어만을 생각한다. 소통의 통로로서 언어만이 유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몸짓과 자세, 얼굴표정, 눈 동작(Eye Movement), 또는 신체접촉(Physical Touch)까지도 신체 언어학, 즉 키네시스(Kinesics)로 봐야 한다. 또 공간도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으로 이해하고 공간언어학, 프락세

믹스(Proxemics)를 논하고 문화권에 따라서 어떻게 공간과 영역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한편 리더십과 권력에 따른 공간 점유 형태를 연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비언

어적 유형에는 개인의 외모는 물론, 의복, 장식, 그리고 몸에 착용하고 다니는 상징물들도 포함 된다”고 설명했다.

일찍이 소통에 관해 관심이

한제언, ‘주요 용어해설’로 구성됐고, 제 2장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성경적 기초, 제 3장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일반 원리 및 교차문화적 이해-‘일반적 커뮤니케이션의 있어서의 비언어적 커뮤니

단일시간 개념과 복합시간개념 측정표 △자민족 중심주의 자가진단표가 수록돼 있어 사역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조용성 선교사는 “조국교회 목회현장이나 한국 선교사들의

“타문화권과 교차문화적 환경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들의 교과서”

“위험이 위험 부르는 연쇄효과” 발생!

퓨처어스 ‘2020위험보고서’, 5개 위험 중 4개 발생가능성 보고

우한 코로나바이러스가 지구촌을 강타해 소란한 가운데 과학자들은 무엇을 세계적 위험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 기후변화 대응 실패, 기상이변, 생물다양성 감소, 식량위기, 그리고 물 부족이 과학자들로부터 인류 생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세계 5대 위험’으로 꼽혔다 (Future Earth, Risks Perceptions Report 2020).

국제 지속가능성연구단체인 퓨처어스(Future Earth)가 52개국 222명의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퓨처어스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선정한 세계 위험 30가지의 명단을 놓고 실시한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최근 발표한 ‘퓨처어스 위험보고서 2020’을 통해 밝혔다.

과학자들은 특히 5대 위험 가운데 식량 위기를 제외한 네 가지는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기후변화 대응 실패와 기상이변은 세계 경제포럼이 발표한 ‘2019 세계 위험보고서’에서도 앞으로 10년간 인류를 가장 크게 위협할 요인으로 꼽힌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 보고서는 세계 정치, 경제 분야 인사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과학자들의 3분의1은 특히 5대 위험 사이의 시너지효과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강조했다. 예컨대 폭염은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물 부족과 식량 부족을 악화한다.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자연의 수용 능력과 기상

이변에 대한 농업의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식량 위기를 부추긴다. 각 위험들이 세계 시스템의 위기를 계단처럼 단계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2008년 중국의 폭

탄 등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고, 이로 인해 식품 가격이 급등하고 석탄 발전소는 가동을 중단했다. 그리고 이는 다시 전력난을 심화시키는 악순환 상황이 야기됐다

설에서 시작된 연쇄 효과를 사례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폭설이 이어지자 19개성의 전기 공급이 끊기고 대중교통 수단이 멈췄다. 그 영향으로 식량, 석

10년 안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위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분기점을 넘었다고 생각되는 위험을 묻는 질문에는 69명만이 응답해

Future of Earth 2020 Know 5 key global risks by Vironika #UPSC #IAS

응답률은 저조했다. 하지만 예문을 주지 않고 자유롭게 답변하는 방식을 채택했음에도 과학자들은 놀라게도 거의 모두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붕괴, 기후변화를 꼽았다.

후퇴, 불평등 악화, 정치적 국가 문을 주지 않고 자유롭게 답변하는 방식을 채택했음에도 과학자들은 놀라게도 거의 모두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붕괴, 기후변화를 꼽았다.

5가지 세계적 위험에 총체적으로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그는 기후변화에 의한 기상 이변이 이미 많은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점, 환경변화에 따른 건강과 생계 영향은 실질적인 삶의 문제라는 점, 지속 가능한 개발로 전환하면 건강에도 이로운 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

그는 과학기술매체 ‘컨버세이션’ 기고문을 통해 “건강의 눈으로 접근하면 지속가능개발 정책으로 얻을 수 있는 ‘윈-윈-윈’ 효과를 조명하고 세계가 직면한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대응실패, 기상이변, 생물다양성 감소, 식량위기, 물부족’ 식량위기 제외 발생가능성 높아... 지속가능개발정책 전환으로 윈윈

30가지 위험 리스트 외에 추가적인 위기를 묻는 질문에는 173명이 응답했다. 이들은 사회적 신뢰 약화, 사회적 인프라

호주 모나시대 지속가능개발연구원 앤서니 캐논 소장은 그 한 방법으로 인간의 건강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글로리 싱글스 커뮤니티에서 싱글을 초대합니다



신앙 안에서 귀한 만남을...

주님의 영광교회는 싱글 남녀들에게 성경적 결혼관과 올바른 가정관을 심어줌과 동시에 그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역을 위해 글로리 싱글스 커뮤니티를 설립하여 이제 제 2기 만남의 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은 지역사회를 섬기는 목적으로 초 교파적으로 운영됩니다.

*나이의 제한 없이 모든 싱글 남녀들의 신청서를 수시로 접수 받습니다.남여의 신청 비율이 맞을 때 연령별로 만남의 장을 마련합니다.

제2기 만남의 장에 다음과 같이 초대합니다.

- 일시: 3월 28일(토) / 29일(주일)
- 시간: 4:00pm
- 장소: 주님의 영광교회 Hope Center
- 참가비: \$100(1기 수료자:\$50)
- 보내실 서류: 1.참가신청서
2.교회주보
3. 담임목사나 담당사역자 또는 지역 단체장의 추천서, 회사 대표의 추천서

*교회홈페이지 gcjc.org에 들어오셔서 안내서와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실수있습니다. 보내실곳: gloriesingles@gmail.com 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정장을 하시고 시간을 지켜야합니다.
문의: 회장 이병만 장로 678-538-7777
디렉터 레슬리조 권사 213-700-6541
주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